언덕교회
www.unduk.or.kr

2023

언덕교회 이야기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http://www.unduk.or.kr

차 례

■ 왜 "언덕교회"인가? ····· 1
<창립배경과 취지> ····· 1
<언덕교회 이미지> ····· 4
<창립선언문> ····· 5

■ 비전과 연혁 ····· 7
<4대 비전> ····· 7
<실천지침> ····· 7
<연 혁> ····· 8

■ 목회와 예배, 교회활동 ····· 18
<2023년도 목회방향> ····· 18
<2023년도 목회활동> ····· 18
<예배활동 및 예배처> ····· 18
<2023년 예배 일정 및 행사> ····· 20
<교육 및 선교, 교제 모임> ····· 22
※ 2023년도 구역편성표 ····· 22

■ 조직과 운영 ····· 23
<교회조직> ····· 23
<부서> ····· 25
<직원구성> ····· 25
※ 2023년도 직원 ····· 26

■ 언덕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포럼 ····· 28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포럼 일정> ····· 28
<포럼 발제문 :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 ····· 29
<논찬 : 언덕교회 이은이 권사> ····· 40
<논찬 : 언덕교회 오세백 집사> ····· 41

※ 초청장 ····· 43

■ **언덕교회가 함께 하는 곳** ····· 44
■ **규약** ····· 48
■ **언덕교회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 ····· 73

■ 왜 “언덕교회”인가?

▮ 창립배경과 취지

언덕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깨어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는 교회의 본이 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1. 교회개혁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슬퍼하며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한 종교개혁이 절실하다는 논의와 열망은 무성하지만 이의 실천을 위한 노력의 결집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력이나마 더 늦기 전에 “우리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립된 것이 언덕교회입니다.

2. 교회 민주화의 모범

사제적 권위주의, 개교회 패권주의, 차별주의, 기복신앙, 낭비와 사치, 외형성장주의, 불투명한 교회재정 운용, 도덕적 타락, 목회자 세습, 사회적 사명의 실종 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의 근원을 따져보면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 및 평신도의 우민성으로 귀결됩니다. 물론 일차적 문제는 교권의 소유자인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방관하거나 조력하는 평신도의 우민성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양자가 동시에 지적되어야 합니다. 이들 두 가지 문제는 결국 비민주적 교회 또는 권위주의적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치유책은 교회의 민주화입니다. 목회자의 권위주의가 불식되어야 하며, 평신도가 각성한 기독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언덕교회는 교회민주화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3. 인치(人治)를 억제하는 민주적 제도화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며 따라서 누구도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치를 배제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내 권력이 특정인이나 집단에 귀속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타락시켜 독재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탈을 경계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도만이 전부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인간에 대한 민주시민성 계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일탈에 대한 적정한 제어장치로서의 제도화입니다. 민주적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죄성에 의한 타락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데, 제도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는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욱이 제도는 인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으며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언덕교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운영에 있어서 인간의 죄성에 바탕한 일탈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교인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창립총회에서 교회규약을 제정하여 이 제도에 의하여 교회운영의 근간이 세워지도록 함으로써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교회운영을 전단하지 못하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언덕교회는 한국 초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4. 평신도(성도)의 주체적 역할

한국교회의 평신도는 목회자에 대한 굴종과 교회문제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에 안주함으로써 주체적 기독시민이 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목회자의 전횡은 제어되지 않고 평신도는 그저 탄식만 하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평신도가 각성하여 주체의식을 가지고 기독시민성을 회복한다면 목회자가 올바로 자리매김을 하고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언덕교회는 이러한 자각에서 목회자의 창도에 의지하지 않고 뜻있는 평신도들의 합력으로 교회를 시작함으로써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적 섬김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 교회개혁운동의 군수기지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개혁에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개혁을 위한 운동은 최전방에서 전투를 직접 담당하는 '전위대'와 전위대를 후방 지원하는 '군수기지'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덕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며 따라서 일차적으로 전위대보다는 군수기지가 되고자 합니다. 개혁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기독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지로서의 '언덕'이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위대의 역할도 적극 담당하고자 합니다.

6. 대안이 아닌 보편적 모델교회

언덕교회가 건강하게 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언덕교회의 전례가 다른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들과의 공통분모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너무 다르면 그러한 교회는 아무리 건강해도 이상한 교회, 특이한 교회, 기껏해야 대안교회로 치부되고, 따라서 주류 교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덕교회는 최대한 기존의 주류 교회와의 공통분모를 확보하면서 교회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교회개혁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예배, 선교, 봉사, 교제 등 교회 본연의 핵심적 기능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그렇지만 교회의 건강 역시 교회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적인 관심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는 적극 수용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한국교회의 표준적 모형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전통과 현대적 요구의 조화를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① 복음적 전통을 지키고, ② 불필요한 폐습을 버리며, ③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외견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합니다.

7. 교회네트워크의 구축

언덕교회는 개혁 진영의 확산을 위한 교회 네트워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형교회는 후패하여 비판의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며, 사실상 일부 중소형 교회만이 개혁의 주체이지만 이들은 역량이 부족하여 힘 있는 교회개혁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기독시민단체들은 재정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 활동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추구 또는 교회개혁에 동감하는 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산하여 교회개혁운동의 세력

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자원으로 하여 개혁적인 기독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회개혁운동을 실질화하고자 합니다.

▮ 언덕교회의 이미지

•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

• 언덕교회의 이미지는 **골고다 언덕과 고향의 언덕이 갖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수난의 현장이자 부활의 현장, 그곳은 슬픔과 걱정이 약속과 희망으로 바뀐 기적의 현장', 그 언덕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받으며 새 희망을 가집니다.

고향의 언덕은 '지친 삶에서 안식이 필요할 때 떠올리고 싶은 곳이며, 언제라도 돌아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반갑게 맞아주는 곳'입니다.

• 언덕이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

1) 편안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바라만 보아도 편안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기대고 싶은 따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2) 때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한 수고를 감내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에 넘치는 수고를 강요하지 아니하시며, 능력이 모자랄 때 능력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3) 우리만을 위한 교회생활이 아니라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원리에 입각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 언덕교회 이미지 요약

마치 언덕이 우리에게 따뜻한 평안과 감내할 만한 수고와 새로운 기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언덕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야말로 **'누구나 바라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 창립선언문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따라서 교회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명을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사제적 권위주의, 개교회적 패권주의, 차별주의, 기복신앙, 낭비와 사치, 외형성장주의 등 각종 질병에 절어 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으로 사회를 선도하던 빛나는 과거는 흔적도 없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로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한국교회의 위기를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연한 의지로 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한 개혁노력에 앞장서야만 한다. 불행히도 교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회개혁을 위한 실천은 미약하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가 중병상태에 빠져있다는 진단을 전제로 할 때, 지금은 교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판에 안주할 때가 아니며 교회개혁을 위한 실천을 필요로 하는 때이다. 특히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개혁실천에 소극적인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개혁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실천하는 모범교회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언덕교회는 이렇듯 절박한 현실인식에 입각하여 창립되었다. 언덕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일하는 모범교회가 되고자 한다. 우리만 그리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되기를 위하여 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언덕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삶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평등한 성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에 있어 가장 큰 병폐의 하나로 치부되는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 배격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언덕교회는 대다수 교회와는 달리 목회자가 창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염원하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이다. 이러한 출발은 교회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평신도의 주체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인 동시에, 교회운영에 대한 목회자의 불필요한 간여에 따른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회자의 전문적 역할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문성에 기초한 목회자의 말씀사역을 철저히 존중한다. 다만, 우리는 건강한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각성한 평신도의 헌신의 적절한 균형과 동역 위에서만 목회자의 불필요한 교회지배가 제어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굳게 믿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소원을 추구할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더 더욱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의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키우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키우시는 것이라는 고백 위에서 다만 종으로서 이 일을 담당하고자 할 따름이다. 우리는 부족하나마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며 또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홀로 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같은 인식과 의지를 갖는 교회들과 합력하여 이 일에 매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교리나 신학사조의 일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을 전체로서 믿는 소박한 신앙고백만이 요구될 따름이다.

창립에 즈음하여 언덕교회는 우리의 티끌같이 작은 출발이 많은 능력 있는 교회들과 뜻있는 기독인들에게 적절한 자극이 되어 아무쪼록 한국종교개혁운동의 불씨가 크게 살아 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2003. 4. 27.
언덕교회

■ 비전과 연혁

언덕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이 4대 비전과 그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설정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4대 비전

1.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 실천지침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4.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합니다.
5. 교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민주적 기구와 절차에 따릅니다.
6. 관리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7.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8.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합니다.
9. 한국교회 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습니다.
10. 민주적인 교회규약을 보전하고 실천합니다.

※ 언덕교회는 창립 시부터 민주적인 교회규약을 만들어 출범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 연 혁

2003.04.01. YWCA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예배장소로 정함
2003.04.03. 교회규약안 회람 및 의견수렴
2003.04.11. 교회설립 준비기도회 및 준비모임 (교회규약안 제안 설명 및 의견수렴, 창립일정 협의)
2003.04.19. 교회명 공모 및 투표 결과 "언덕교회"로 결정

2003.04.27. 이승구 목사, 류황희 강도사를 설교자로 창립예배 및 창립총회 개최

2003.05.10. 홈페이지 개설 (그림 조래원 화백)
2003.05.11. 첫 정기 사회봉사활동 개시 (안양 평강의집)
2003.06. 기독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개시
2003.06.15. 첫 야외예배 실시
2003.07.19. 첫 구역모임 개최
2003.07.27. 교회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08.15. 첫 전교인수련회 개최
2003.08.17. 첫 전도세미나 개최
2003.08.31. 첫 흩어지는 예배 실시
2003.08.29. 첫 전교인 특별기도회 실시
2003.10.12. 박득훈 목사를 전임목사로 초빙

2004.02.22. 개혁교회 월례 기도회 첫 정례참석
2004.02.29. 원주언덕교회, 예닮교회와 연합예배 (원주)

2005.01.02.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대학교 강당으로 예배처소 이전**
2005.08.12. 진주 주님의교회와 제1회 연합수련회 (경남 고성)
2005.10.30. 개혁교회네트워크 결성 및 기념체육대회 (원주언덕교회, 전주언덕교회, 성터교회 등)

2006.08.06. 진주 주님의교회와 연합수련회 (용인)

2007.06.24. 전교인 대화의 시간 개최
2007.08.11~12. 여름수련회, 주제: "회복" (여주)

2008.07.01. 박창훈 목사를 공동목회자로 초빙
2008.08.10. 진주 주님의교회와 연합수련회 (거창)
2008.09. 외부 장학금 첫 지급 (대학생, 고등학생)

2009.08.15. 개혁교회 네트워크 연합수련회 참가
주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2010.04.11. 개혁교회네트워크 세미나 참가
주제: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2010.04.30. 박득훈 목사 사임
2010.08.08. 박종현 목사를 공동목회자로 초빙
2010.08.15. 네트워크교회 수련회 (일산증가수양관)
2010.10.30~31. 전교인 수련회 (설악산)

2011.05.15. 야외예배 (수원 아주대)
2011.05.22. 교회개혁네트워크 세미나 참가
주제: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2011.08.13~15. 여름수련회
주제: "좋은 언덕 만들기", 춘천 청소년야영장
2011.10.09. 개혁교회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
주제: "우리는 교회다", 부천 구산중학교
2011.12.04. **서초구 서초동 (파고다어학원) 예배처소 이전**

2012.05.20. 개혁교회 네트워크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언덕교회 주최)
2012.08.05. 새맘교회 방문예배 (전교우)
2012.08.11~12. 개혁교회 네트워크 연합수련회 (강화유스호스텔)
2012.10.25. 교회개혁실천연대 10주년 기념행사 참가
주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2013.03. 수요예배처를 피난처 내 라이트하우스로 변경
2013.04.28. **언덕교회 10주년 창립기념예배**
2013.08.24~25. 하계 언덕수련회 (춘천 청소년수련원)
주제: "쉬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2013.10.20. 교회개혁네트워크 세미나 참가 (인천구월여중)
주제: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2014.02.23. 임직식: 박종연 장로, 성미란 권사, 김강희, 이슬기, 정미나 집사
2014.04.06. 부활절예배 및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강단교류
(너머서 ↔ 언덕, 언덕 → 새들녘)
2014.04.20. 언덕교회 정체성교육
2014.04.27. 창립예배 및 좌담회 (주제: 언덕교회10년사)
2014.05.11. 야외예배: 수원 아주대학교 운동장
2014.05.25. "이런교회다니고싶다" (예인교회) 참여 (대표기도)
2014.06.13. 건작연 심포지엄 (교회 운영위원 대상 MT) 참여
2014.07. 김태완 목사 교육목사 청빙
(교회학교와 찬양인도, 예배 주보 및 설교 담당)
신학독서모임 시작: 격주로 진행
2014.08.17. 전교인대상 성경퀴즈대회
2014.08.23~24. 교회여름수련회 (강원도 춘천시 청소년수련원)
2014.08.31. 전교인독서토론회
엘리자베스 존슨,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2014.09.28. 건작연 강단교류(언덕 → 더함, 더작은 → 언덕)
2014.10.11. "작은교회박람회" 참여: 동영상 제작 참여,
언덕교회 자체부스 및 건작연 공동부스 운영
2014.10.26. 하반기 건작연 심포지엄(새맘교회) 참여
2014.11.09. 최종원 목사 설교목사 청빙 결정
2014.11.30. 여성부 주관 예배 (설교: 이경숙 권사) 및
내부특강 (김태완 목사: "교회와 여성")

2015.01. 새로운 예배 형식 도입 (월 1회 시행)
2015.01.07. 박창훈 목사 안식년 (6개월)
2015.01.25. 임직식: 송진수 집사, 조준 집사

2015.03.31. 평신도설교 예배 (설교: 송진수 집사)
2015.04.19. 외부초청설교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2015.05.17. 제10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참여 (장소: 숭실대, 주관: 새맘교회, 주제: 자유를 꿈꾸는 교회)
2015.07.17~18. 제1회 언덕 신학독서모임 워크숍 (장소: 강화도, 강사: 길희성 교수)
2015.08.26. 수요예배처소 변경 (서울 마포구 빅퍼즐 문화 연구소)
2015.08.29~30. 언덕여름수련회 개최 (강원도 춘천시 청소년수련원)
2015.09.17. 건작연 심포지움 참석 (장소: 인천청소년수양관)
2015.10.09. 작은교회 박람회 부스운영 (장소: 이화여자고등학교)
2015.10.25. 건작연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 (주제: 사랑 더 깊게! 나눔 더 많이, 장소: 인천 계양경기장)

2016.01.24. 임직식 : 김영식 장로, 최종국 장로, 이경숙 권사, 손종칠 집사, 이승희 집사, 강성희 집사, 김희병 집사, 문갑성 집사, 최진경 집사
2016.04.24. 교회규약 주제 전교인 토론회
2016.04.24~05.08. 도서바자회
2016.05.14. 기독인연대 주최 족구 대회 (장소: 광나루한강공원)
2016.05.29. 야외 예배 (장소 : 용산가족공원)
2016.06.26. 전교인 독서토론회
윤영훈, <명곡 묵상>
2016.07.03. 건작연 주관 강단교류 설교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 ↔ 언덕교회 박창훈 목사)
2016.8.20~21. 전교인 수련회 (장소: 경기도 양평 삐삐 산장)
2016.10.03. 외부 특강 (서울신대 오희천 박사 : "사유란 무엇인가")
2016.10.23. 전교인 독서토론회
루터, <95개조 반박문>
2016.10.30. 건작연 연합 찬양제 (장소 : 오정 아트홀)
2016.12.18. 건작연 주관 강단교류 (새숨교회)

2017.01.22. 임직원 헌신예배: 안준호 장로, 김효경 권사, 정진옥 권사,

	최금희 권사, 고일화 집사, 김상윤 집사, 김재인 집사, 윤선희 집사, 장승희 집사
2017.01.29.	흩어지는 예배
2017.03.26.	용산 드림시티 노숙인센터 사회봉사활동 시작
2017.04.23.	창립기념예배, 규약토론회
2017.08.19~20.	전교인 하계수련회 (장소: 경기도 양평 삐삐산장)
2017.10.08.	흩어지는 예배
2017.10.09.	작은교회한마당 (감신대) 부스 참여
2017.10.29.	종교개혁기념 건작연 연합예배 및 찬양제
2017.11.12.	교인총회(인사) (집사: 양환준, 이승예, 박현이)
2017.12.03.	9개 부서를 믿음소위(예배,선교,교육부), 사랑소위(복지.봉사,친교부), 소망소위(총무.재정.기획부)의 3개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부서간 협업의 활성화 및 부서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2017.12.16.	2018년도 교회운영 및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 워크샵
2017.12.24.	성탄예배: 구역별 장기자랑, 어린이 특송, 전교인 특송 등
2017.12.31.	송구영신예배 (평신도설교: 장승희 집사)
2018.01.28.	임직원 헌신예배
2018.03.11.	건작연 강단교류 (새맘교회 이수연 전도사 ↔ 언덕교회 최종원 목사)
2018.04.15.	외부특강 (강사: 이미란 집사)
2018.04.22.	창립예배 (평신도 설교: 주재영 집사), 규약 개정안 토론회
2018.40.29.	제11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참여 (복사골 문화센터, 예인교회)
2018.05.	가이드포스트 발간 주체 변경에 따른 예배처소 비용을 기존 선교비에서 임대료로 전환
2018.06.17.	외부특강 (강사: 생명평화마당 이정배 교수)
2018.07.29.	흩어지는 예배(구역별로 방문교회 추천하여 진행): 동트는구역/사랑의교회, 노을구역/서울루터교회, 촛불구역/한국퀘이커교회, 샘물구역/한백교회)
2018.08.18~19.	전교인 하계수련회 (장소: 양양 솔베이 펜션)
2018.08.26.	흩어지는 예배 보고회

2018.09.23. 추석명절 흩어지는 예배
2018.09.30. 여성회 주관 추수감사예배 (설교자: 장승희 집사),
2018.10.14. 임시운영위원회에서 규약 개정 최종안 논의
2018.10.28. 2019년도 구역 편성 추첨 (구역장대표 양환준 집사 주관으로 전산 방식에 의해 전교인을 4개 구역으로 재편)
2018.11.12. 교인총회(인사): 규약개정안 의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1월 사무총회로 연기. 신임 직분자 선출 (권사: 노정숙, 노지영, 이광선, 이영희; 집사: 배상필, 조희정, 최연임)
2018.12.16. 건작연 강단교류
(더함공동체 권요셉 목사 ↔ 언덕교회 김태완 목사)

2019.01.06. 신년예배 (교회표어: '빛과 진리 가운데 행동하는 공동체')
2019.01.11. 언덕교회 유튜브 채널 개설
2019.01.27. 독서모임 (도서: 21세기 평신도를 위한 평신도신학, 배상필)
2019.02.10. 어린이 설교 폐지 및 언덕길 쉼터 신설
(1회 쉼터 : 김영식 장로 '나이 듦에 대하여')
2019.02.24. 졸업예배 (대상자: 손지수, 배가은, 안민철, 박채원, 박두리)
2019.03.03.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19년 언덕이야기 발간(150부)
2019.03.17. 독서모임 (도서: 배움의 공자와 물음의 소크라테스, 손종칠)
2019.03.31. 흩어지는 예배 (구역별로 방문교회 추천하여 진행): 지수구역/한국정교회, YG구역/벙커1교회, 엘파님구역/가향교회, 이보나구역/더작은교회)
2019.04.28. 창립기념예배 및 외부특강 (수단 선교사 아담 특강 - 난민과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2019.06.16. 독서모임도서 '배움의 공자와 물음의 소크라테스' 저자 (이응구) 초청 만남
2019.06.30. 평신도설교 (설교: 장경순 권사), 내부특강 (강사: 정미나 집사, 주제: 스타트업이란?)
2019.07.28. 독서모임(도서: 마리아복음서, 박경옥 권사)
2019.08.11. 언덕교회 신규 홈페이지 개설
2019.8.24~25. 전교인 하계수련회 (장소: 춘천 소양호 농어촌 인성학교)
2019.09.22. 독서모임(도서: 구약문헌과 비평, 배상필 집사, 최종원 목사)
2019.10.31. 외부특강 (주제: 한국 교회개혁운동의 현주소, 강사: 배덕만

느헤미야 신학연구원 교수)

2019.11.10. 교인총회(인사) 신임 (권사: 박금희, 집사: 백승호, 김효영)

2020.01.05. 신년예배 (교회표어: '생명의 강물이 넘치게')

2020.01.12. 교인사무총회에서 성서한국 및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가입 결정

2020.01.25. 독서모임 (영화관람: 82년생 김지영)

2020.02.02. **새로운 예배형식 도입 (1부: U-Ola예배, 2부: 공동예배)**
(1주: 고전읽기 2주: 성경공부 3주: 성경읽기 4주: 기도회)

2020.02.23.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에 따라 교회 출석 없이 가정 예배

2020.03.01.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튜브 온라인 예배 시작

2020.03.22. 코로나19 마스크 품귀 상황으로 교회 후원처(○○○가정, ○○○할머니) 마스크 전달을 위한 교인 마스크 모으기 홍보

2020.03.29. 교인 마스크 모으기로 수집한 마스크를 미얀마 노동자 지원 활동 중인 부천 '실로암 교회'에 1차 전달

2020.04.26. 온라인 창립기념예배, 마스크 수집 및 전달을 위해 구역별 모임

2020.05.10.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오프라인 예배 (어버이주일) 재개
(현장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 시작)

2020.05.17. 부천 '실로암교회'에 교인 기부 마스크 2차 전달

2020.05.24. 언덕교회 봉사활동처(서울역 드림시티) 생일자 도시락 전달

2020.06.09. 교회 홍보 유튜브 '교회의 재구성' 채널 개시

2020.06.14. 내부특강 (강사: 손종칠 집사, 주제: 부동산과 경제 정의)

2020.06.21. 부천 '실로암 교회'에 교인 기부 마스크 3차 전달

2020.06.28.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타 교회 및 내부교인 재정 지원
(□□□교회 50만원 전달, 내부교인 2명 6월~12월 지원금 160만원 책정)

2020.07.26. 온라인 외부특강 (강사: 김근주 교수, 주제: 복음의 공공성)

2020.08.02. 이전 예배형식 재개(1부: U-Ola예배, 2부: 공동예배)

2020.08.23.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온라인 예배 개시

2020.08.30. 온라인 흩어지는 예배 (광주고백교회, 예인교회, 분당우리교회,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온라인 주일학교(초등부) 개시

2020.09.06.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타 교회 교인 재정 지원(2차)

(편모가정 50만원 전달, 공사현장 사고가정 50만원 전달)
2020.10.11. 비대면 성평등 교육(강사: 오수정 청어람 대표, 주제: 가족, 가장 작은 교회)
2020.10.18. 예배 필수인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온라인중계 등) 참석
2020.11.01.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온라인 연합예배 및 성찬식 (장소: 백향나무교회, 최종원 목사 참석)
2020.11.08. 교인총회(인사) 신임 (집사: 백 운, 안민철, 이수현)
2020.11.15. 교회 후원 카메룬 정의진·김하나 선교사 선교보고회 개최
2020.11.29. 2021년 구역 재편 (3개 구역으로 편성)
2020.12.20. 최종원 목사 전별 (3인 공동목회에서 2인 공동목회 체제로)

2021,01.03. 신년예배 (교회표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2021.01.10. 초청설교: 방창인 선교사(네팔), 교인 사무총회
2021.01.24. 임직자 세움 (집사: 백운, 안민철, 이수현)
2021.01.31. 평신도 설교 (안준호 장로)
2021.02.21. 대면예배로 전환, 초청설교: 이인 목사
2021.03.07. 1부 U-Ola 예배 재개
2021.03.14. 초청설교: 전건국 목사
2021.03.17. 독서모임 (도서: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조윤경 집사)
2021.03.29~04.02. 고난주간 온라인 기도 모임
2021.04.11. 평신도 설교 (김영식 장로), 직원회
2021.04.25. 창립주일예배 (영상으로 찬송 부르기)
초청설교: 방인성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2021.05.09. 초청설교: 강도영 목사 (빅퍼즐문화아카데미 소장)
2021.05.12. 독서모임(도서: 동성애 대한 두 가지 견해, 조윤경 집사 인도)
2021.05.30. 건작연 연합예배(온라인)
2021.06.13. 초청설교: 박경엽 선교사
2021.06.27. 전교인 바자회 (친교부 주최)
내부특강: 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태완 목사)
2021.07.03.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
2021.07.10. 초청설교: 윤영훈 목사 (성결대 교수)
2021.08.14~15. 전교인 온라인 수련회를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연합수련회 참여로 대체

2021.08.29. 여성회 주관 예배, 평신도설교: 배상필 집사
2021.09.12. 초청설교: 이상수 목사(전주 복음자리교회)
백신 2차 접종한 교우, 예배 필수인원(설교, 기도, 성경봉독, 온라인 중계 등) 참석
2021.09.26. 독서모임(도서: 없는 것이 많아서 자유로운, 배상필 집사 인도)
2021.10.10. 초청설교: 장선주 선교사(러시아)
2021.10.31.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연합예배
2021.11.14. 교인총회(인사)
은퇴 (권사: 이경숙,이영희,장경순/ 집사: 정현표, 조래원)
재신임 (장로:안준호/ 권사:김효경, 최금희/ 집사: 고일화, 김상윤, 윤선희, 이선영, 조윤경, 주재영, 정미나)
2021.11.21. 추수감사주일
2021.12.12. 초청설교: 누암찐 집사(미얀마)

2022.01.02. 신년예배 (교회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공동체')
2022.01.09. 교인 사무총회, 초청설교: 박성규 선교사(예승 선교센터)
2022.01.16. 독서모임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배상필 집사 인도)
2022.01.23. 1차 새가족교육 수료 (서재호, 최주영)
2022.01.30. 흩어지는 예배 (추천교회 : 생명사랑교회,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 새민족교회)
2022.02,13. 초청설교: 조기주 목사
20주년 TF 결성 (정미나, 최종국, 배상필, 이승예, 손지은)
2022.03.13. 평신도 설교: 배상필 집사
2022.03.20. 독서모임 (도서: 공정하다는 착각, 배상필 집사 인도)
2022.04.10. 건작연 강단교류 (언덕<->새맘), 직원회
2022.04.11~15. 고난주간 온라인 기도 모임
2022.04.24. 창립주일, 초청설교: 강도현 대표 (뉴스앤조이)
2022.05.08. 초청설교: 이헌주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2022.05.15. 독서모임 (도서: 소란스러운 동거, 조윤경 집사 인도)
2022.05.29. 야외예배(서울신학대학교), 평신도 설교: 김영식 장로
2022.06.05. 이전 예배형식 재개 (1부: U-Ola예배, 2부: 공동예배)
2022.06.12. 초청설교: 이은재 전도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2022.06.26. 내부특강: 박종연 장로 (치매, 기억친구 되기)

2차 새가족교육 수료 (오세백, 유선영)

2022.07.17. 직원회, 독서모임 (도서: 소란스러운 동거, 조윤경 집사 인도)

2022.07.31. 평신도 설교: 최종국 장로

2022.08.07. 초청설교: 이병주 변호사 (기독법률가회)

2022.08.14. 3차 새가족교육 수료 (김상헌,박보경,석경주,안찬영,임승희)

2022.08.20~21. 전교인 수련회 (춘천시 청소년 여행의 집)

2022.09.11. 흩어지는 예배 (추석)

2022.09.18. 독서모임 (도서: 믿는 인간에 대하여, 조윤경 집사 인도)

2022.09.25. 추수감사예배

2022.10.10. 청계산 산행

2022.10.16. 평신도설교: 이은이 권사,
독서모임 (도서: 믿는 인간에 대하여, 조윤경 집사 인도)

2022.10.23. 야외예배: 김포하우스 (장경순 권사 동생)

2022.10.30.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연합예배

2022.11.06. 4차 새가족교육 수료 (권성란, 김무제)

2022.11.13. 평신도 설교: 이승종 장로

2022.11.20. 교인총회(인사)
은퇴 (장로: 안준호/ 권사: 이은이),
신임 (집사: 서재호,오세백,유선영) 재신임 (권사: 박경옥/
집사: 박현이,양환준,이승예,조현일,황윤연)

2022.11.27. 20주년 TF 발표 1 (청년과 함께 하는 교회와 교회학교: 배상필 집사)
독서모임 (도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조윤경 집사 인도)

2022.12.04. 20주년 TF 발표 2 (성례전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자세: 박창훈 목사)

2022.12.11. 건작연 연합예배 (장소:새맘교회)

2022.12.18. 20주년 TF 발표 3 (직분제에 대한 고찰: 김태완 목사)

2022.12.25. 성탄예배,
세례 (유아: 백연우, 안도윤, 안소윤/ 청년: 박보경, 석경주)

2022.12.28. 송구영신예배 (장소: 빅퍼즐문화아카데미)

■ 목회와 예배, 교회활동

▌2023년도 목회방향

주제: "모두가 주님의 영으로 함께 꿈을"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요엘 2장 28~29절)

▌2023년도 목회활동

• 박창훈 목사
- 공동예배설교(월2회), 기독교 고전읽기, 심방, 성만찬, 구역장 모임, 수요예배 설교, 새가족 교육, 임직자 교육, 느교협 활동

• 김태완 목사
- 공동예배설교(월1회), 성경공부, 심방, 성만찬, 수요예배 설교, 교육부서 총괄, 새가족 교육, 청년부, 건작연 활동

▌예배활동 및 예배처

• 주일예배 (1부 U-Ola예배: 오전 10:50 ~, 2부 공동예배: 오전 11:40 ~)

- 1부 U-Ola 예배 : ① 히브리어 '올라(עלה)'는 번제(예배)" ② 성경적으로 " (성전으로) 올라가다"
(1주) 기독교 고전읽기 / 초·중·고: 별도 성경공부 / 청년부: 별도 성경공부
(2주) 찬양 예배 / 초·중·고: 별도 성경공부 / 청년부: 별도 성경공부
(3주) 공동체 성경 읽기 및 생각 나누기 / 초·중·고·청년부: 별도 성경공부
(4주) 다 함께하는 예배 (어린이 설교)

- 2부 공동예배 : 모든 교인이 연령 구분 없이 다 같이 합동예배를 드림. 유아 및 초등생은 교육담당 교사의 주관 하에 어린이는 별도 공간으로 분리

하여 공과공부 등 주일학교 활동. 특별찬양은 구역 및 자치기관 등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대표기도, 성경봉독 등 예배의 주요 순서를 교우 중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예배에 평신도의 참여를 극대화함. 개인, 교회, 사회를 위한 공동기도, 예배 후 설교에 대한 질문과 토론

- 수요예배: 월 1회 (매월 4주차), 다른 주간의 수요예배나 기도회는 자발적으로 가까운 교회에 참여하도록 권장

• 강단의 개방과 다양한 형식의 예배

- 설교 기회를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도 개방하기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평신도설교 예배를 드림

- 연간 2회 이상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개인이나 구역별로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림 (흩어지는예배)

- 이외에 예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초청예배, 청년회, 여성회 등 자치회 주관 예배,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참여교회들 간의 강단교류 등을 시행함

• 예배장소

언덕교회는 전용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덕교회는 크고 호화로운 예배당을 소유하기보다는 그 재원으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전념합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고, 현재의 예배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일예배: 파고다어학원 7층 이벤트홀
- 교회학교, 자치회, 각종 회의 등 주요 공동체 활동: 파고다어학원 7층 강의실
- 수요예배: 빅퍼즐문화연구소 (서울 마포구 홍익로 5길 43 2F)

▮ 2023년 예배 일정 및 행사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1월	(1일) 신년예배	(8일) 임직원 교육 1	(15일) 임직원 교육 2	(22일)	(29일) 임직원헌신예배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 성경공부 / 구역모임	성경읽기 /독서모임	흩어지는 예배1	연합기도회 /사회봉사
2월	(5일)	(12일) 초청설교1	(19일)	(26일) 사순절1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성경공부/ 구역모임	성경읽기 /독서모임	연합기도회 성찬식1/사회봉사	
3월	(5일) 사순절2	(12일) 사순절3/ 평신도설교1	(19일) 사순절4	(26일) 사순절 5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공동체성경읽기 /독서모임	다함께하는예배 부서모임1/사회봉사	
4월	(2일) 종려주일	(9일) 부활절 예배	(16일) 강단교류	(23일) 창립예배	(30일) 초청설교2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공동체성경읽기 성찬식2/독서모임 직원회1	다함께하는예배 /20주년언덕포럼1	20주년언덕포럼2
5월	(7일) 어린이/어버이주일	(14일) 평신도설교2	(21일)	(28일) 성령강림주일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야외예배1	공동체성경읽기 /독서모임	건작연연합예배 부서모임2/사회봉사	
6월	(4일)	(11일) 평신도설교3	(18일)	(25일)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공동체성경읽기 /독서모임	다함께예배/내부특강1 성찬식3/사회봉사	

7월	(2일)	(9일) 초청설교3	(16일)	(23일)	(30)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공동체성경읽기 /독서모임	다함께하는예배 부서모임3/사회봉사	흩어지는 예배2
8월	(6일)	(13일) 평신도설교4	(20일) 전교인수련회	(27일)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독서모임/성만찬4 내부특강2	다함께하는예배 /사회봉사	
9월	(3일)	(10일) 평신도설교5	(17일)	(24일)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공동체성경읽기 /독서모임	다함께하는예배 부서모임4/사회봉사	
10월	(1일)	(8일) 초청설교4	(15일) 야외예배2	(22일)	(29) 종교개혁기념주일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공동체성경읽기 /독서모임	다함께하는예배 성만찬5/외부특강2 사회봉사	느교협연합예배
11월	(5일)	(12일) 평신도설교6	(19일)	(26일)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인사총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공동체성경읽기 /독서모임	다함께하는예배 부서모임5/사회봉사	
12월	(3) 대림절 1	(10일) 대림절 2 초청설교5	(17일) 대림절 3	(24일) 성탄예배	(31일) 평신도설교7
	기독교고전읽기 운영위원회	연합기도회 구역모임	공동체성경읽기 /독서모임	다함께하는예배 성만찬6	사회봉사

▌교육 및 선교, 교제 모임

- 구역모임: 월 1회 구역별로 모임
- 새가족교육 : 교역자와 교육부장이 주관하여 교육함
- 독서모임: 월 1회, 정해진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
- 성경공부: 월 1회, 성경 기초, 읽기, 심화 반을 운영함
- 교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한 교제
- 월 1회 구역별 봉사활동 시행

* 노숙인 생일 식사, 미자립교회, 뉴스앤조이, 빅 퍼즐 문화연구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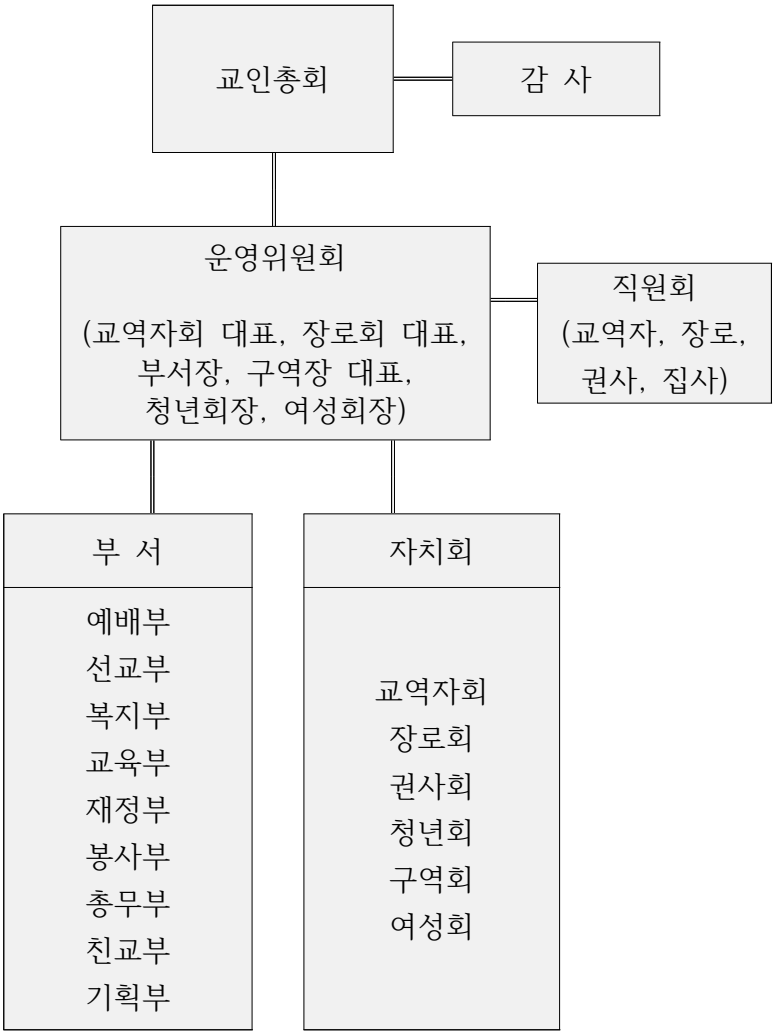
- 교회개혁실천연대, 건강한작은교회연합,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성서한국 연대 및 후원
- 난민 가정 후원 및 영국, 우크라니아 등 해외 선교사 후원
- 기타 : 제자훈련반, 중보기도반, 중창단, 운동모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2023년도 구역 편성표

구 역	구역장	구역원
일당백	이승예	권성란, 김무제, 김효경, 노정숙, 박창훈, 박현이, 백 운, 서재호, 성미란, 손지은, 안준호, 안찬영, 양환준, 이경숙, 이수현, 이승예, 정미나, 조윤경, 최연임
시너지	김영식	김영식, 배상필, 손종칠, 오세백, 유선영, 윤선희, 이승종, 이승희, 이영희, 이은이, 장경순, 정현표, 조래원, 주재영, 최규섭, 최금희, 한금수, 황윤연
올라	노지영	강성희, 김강희, 김효영, 김희병, 노지영, 문갑성, 박경옥, 박금희, 박소현, 박종연, 백병완, 백승호, 안민철, 이광선, 최종국, 홍성진
청 년		박두리, 박보경, 박재형, 박채원, 석경주, 안민영, 안민혁, 양세연, 양세영, 오준석, 최주영

■ 조직과 운영

▌ 교회조직


교인총회
감 사
운영위원회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부서장, 구역장 대표,
청년회장, 여성회장)
직원회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부 서
예배부
선교부
복지부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총무부
친교부
기획부
자치회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청년회
구역회
여성회

• 조직원칙

- 교회 내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축함
-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임직의 민주적 선출제와 임기제 도입

• 조직의 원리

- 교인과 직원 (국민)
- 심의 및 의결기관: 교인총회 (국회)/ 직원회 (위원회)
- 집행기관: 운영위원회 (국무회의)/ 집행부서 (부, 처, 청)
- 자치기관 (지방자치단체)
- 감사 및 평가기관 (감사원, 법원)

• 교인총회

-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및 승인
- 교역자의 초빙, 장로, 권사, 집사의 선출 및 신임
- 의장은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교인총회가 선출
- 정기회는 2회 개최 (인사총회 11월, 사무총회 1월)

• 직원회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의견 제시

• 운영위원회

-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각 부서장, 청년회장 및 구역장 대표, 여성회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
- 교역자회 대표는 목사로 하며 3인 이내
- 장로회 대표의 수는 2인 이내
- 부장은 직원회에서 선출하며 여성이 1/5 이상 되도록 노력함
- 업무: 교회의 기본운영방침, 재정운영기본계획, 인사 등의 업무

- 운영위원장은 교인총회의장을 겸임하지 못함
- 운영위원회는 교인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발언권을 보장

▮ 부서

1. 예배부: 예배, 성례, 주보, 예배안내, 찬양, 위임자 초빙 등
2. 선교부: 국내외 선교, 언덕이야기 발행, 사이버선교 및 홍보 업무, 미자립교회 지원 등
3. 복지부: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구제, 사회봉사, 장학사업 등
4. 교육부: 교회학교, 새가족 및 기초신앙 교육에 대한 업무
5. 재정부: 재정에 관한 업무
6. 봉사부: 봉사에 관한 업무(중식 및 접대 등)
7. 총무부: 기록유지, 비품 및 시설관리, 업무조정, 홈피, 미디어팀, 기타업무
8. 친교부: 교인의 친교, 심방, 야외예배, 수련회, 체육대회, 친목활동, 교회안내, 환영행사, 교우소개, 새가족관리 등
9. 기획부: 교회발전기획, 교회운영평가, 교회개혁운동, 기독시민운동, 대외협력 업무, 특별활동 등

• 자치기관

구역회,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연령별모임, 여성회, 청년회

▮ 직원구성

• 목사

- 목사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 임기종료 연도 말 교인총회에서 유임 여부 결정
- 모든 목사(비전임 포함)는 매 1년 시무 당 1개월의 안식월 부여

• 장로

- 50세 이상의 남녀 운영위원 2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 임기 5년에 정년 만 65세

• 권사

- 권사는 장로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 및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여자 교인으로서 집사 시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 임기 5년에 정년 만 65세

• 집사

- 3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 임기 5년에 정년 만 65세, 안수집사는 두지 않음

※ 2023년도 직원

• 직원

- 목회자

박창훈 목사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B.A.)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미국 Duke 대학교 신학석사 (Th.M.) 미국 Drew 대학교 철학박사 (교회사, Ph.D.) 미국 뉴욕한빛교회 부목사 온양성결교회 담임목사 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태완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석사(Mdiv)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수료 참사랑교회 교육목사 강남새사람교회 부목사

- 장　　로: 박종연, 최종국
(은퇴장로: 이승종, 김영식, 안준호)
(명예장로: 최규섭, 정현표, 조래원)

- 권　　사: 김효경, 노정숙, 노지영, 박경옥, 박금희, 성미란, 이광선, 최금희
  (은퇴권사: 장경순, 이경숙, 이영희, 이은이)
  (명예권사: 한금수, 홍현순)
- 집　　사: 강성희, 김강희, 김효영, 김희병, 문갑성, 박현이, 배상필, 백승호, 백　운, 서재호, 손종칠, 안민철, 양환준, 오세백, 유선영, 윤선희, 이선영, 이수현, 이승예, 이승희, 정미나, 조윤경, 주재영, 최연임, 홍성진, 황윤연
- 성　　도: 권성란, 김무제, 백병완, 안찬영
- 청　　년: 박두리, 박보경, 박소현, 박재형, 박채원, 석경주, 손지은, 안민영, 안민혁, 양세연, 양세영, 오준석, 최주영
- 중 고 등: 권준우, 오현석, 김윤후
- 초　　등: 김윤준, 손지수, 오은석

• 의결/ 평가기관

- 교인총회 의장(직원회의장) (임기 1년): 박창훈
- 감사 (임기 1년): 김효경, 이광선

• 집행기관

- 운영위원장 (임기 1년): 박종연
- 부서장 (임기 1년)
  예배부: 김효영　선교부: 서재호　복지부: 오세백
  교육부: 백승호　봉사부: 배상필　총무부: 주재영
  친교부: 문갑성　기획부: 양환준　재정부: 조윤경
- 운영위원 (임기 1년)
  * 구성 :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권사회 대표, 각 부서의 부장, 구역장 대표, 여성회장 및 청년회장
  김태완, 김효영, 문갑성, 박금희, 박종연, 배상필, 백승호, 서재호, 양환준, 오세백, 조윤경, 주재영

■ 언덕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포럼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및 포럼 일정>

▮ 창립기념 예배 : 2023년 4월 23일 11:00~12:30
- 설교 : 언덕교회 박창훈 목사

▮ 창립기념 포럼 I : 2023년 4월 23일 14:00~16:00
- 주제 : 언덕교회의 과거와 현재
- 발제 :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
- 논찬 : 언덕교회 이은이 권사, 오세백 집사

▮ 창립기념 특별 초청 예배 : 2023년 4월 30일 11:00~12:00
- 설교 : 숭실대학교 김희권 교수

▮ 언덕 20주년 포럼 II : 2023년 4월 30일 12:00~13:00
- 주제 : 언덕교회의 나아갈 길

<포럼 발제문 :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

언덕교회의 과거와 현재

1. 잃어버린 교회 민주주의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과 신도의 수 늘리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물론 복음을 전해 신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개척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통해 한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모험을 했다. 그 모험 중의 한 가지가 민주주의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한국 초기 교회의 영향이 매우 컸다. 왕정 시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민주적 요소가 복음과 함께 한국 사회에 심어졌고, 교회는 물론 학교, 병원, 사회봉사 기관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겨자씨 한 알을 심으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가 머물게 되듯, 복음과 함께 심어진 민주주의는 교회와 한국 사회,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기틀이 되었고 국가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정착하는데 초기 교회는 큰 역할을 했다.

초기 교회 운영은 목사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았다.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 그들에 의해 구성된 당회, 직분 자들이 모여 교회 살림을 논의하는 제직회, 그리고 가장 큰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의회, 교회 운영을 위한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음은 명백하다. 교회 내 부서들도 각자의 회칙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던 것이 신앙과 경제적 성공을 하나로 묶고,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를 겪으면서 왜곡되기 시작했다. 특히 목회자들은 독재정권을 편들기 위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는 바울의 말을 곡해했다. 이런 식의 곡해가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았다. 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다시 당회장이 되었다. 흡사 작은 교황과 같은 위력(威力)을 가지게 되었다. 천주교에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는 말이 생겼다. 이원론에 빠져 신앙의 내면화, 내세화로 현실에서 신자답게 사는 것을 막았고, 성공만능주의가 교회를 점령하면서 복음보다는 돈, 소금과 빛 보다는 부자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목사

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본말의 전도도 일어났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은 그렇게 사라졌다.

한국교회의 성장세는 국가부도(IMF)를 경험하면서 멈췄다. 성장하는 교회보다 쇠퇴하는 교회가 늘어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진지하게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논의할 연합체가 없던 한국교회는 각자 내놓는 성장 전략의 홍수로 혼란만 가중되었다. 혼란 중에 그나마 괜찮은 방법들은 잠깐 유행을 타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찻잔 속 태풍처럼 사그라들었다. 쇠퇴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고, 오히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서 쇠퇴의 속도는 빨라졌다. 결국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성장을 위해 매달렸다. 이런 풍조는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포기한 시점에서 시작되었고, 예견된 절차에 따라 악화되었다.

2. 언덕이 있어서

언덕교회는 한국교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을 때인 2000년대 초반 태동했다. [언덕교회 10년사]는 언덕교회의 태동을 "한국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을 모색하는 몸부림이요, 연대의 절실함이었다. 그것은 풍성한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였으면서도, 한국 사회로부터 이기주의적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한국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성스러운 모험이었다"(P.7)라고 말했다.

언덕교회를 설립한 이들은 설립 배경을 일곱 가지로 밝혔다. "교회개혁에 대한 절박한 몸부림, 교회 민주화의 모범, 인치를 억제하는 민주적 제도화, 평신도(성도)의 주체적 역할, 교회개혁 운동의 군수기지, 대안이 아닌 보편적인 모델교회, 교회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언덕교회는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실천지침을 두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진 예배를 드린다.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시행한다. 교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관리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교역자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한다. 한국교회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민주적인 교회 규약을 보전

하고 실천한다."(p.121-122) 설립 당시, 언덕교회와 민주적 운영을 하는 교회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 오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교회에서는 꿈꾸지도 않는 숨겨진 가치들을 찾아낸 설립 배경은, 그 제목만으로도 한국교회에 큰 도전이 되었다.

언덕교회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교회개혁의 군수기지 역할 감당으로 인해 교회개혁진영과 개교회주의 극복의 좋은 예가 되었다. 개척한 교회는 자기 생존을 가장 중시한다. 자연스럽게 이웃과 세상을 위한 섬김은 차순위가 된다. 하지만, 언덕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개혁 진영을 위해 자신을 내놓았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힘을 받은 곳이 뉴스앤조이와 교회개혁실천연대이다. 이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 개혁운동은 많이 달랐을 거다. 또 흩어지는 예배는 한국교회가 이웃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교회는 다른 교회에 가거나,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 듣는 것을 막는다. 같은 교단에 대해서도 그러하니 타 교단에 대해서는 더 냉소적이다. 흩어지는 예배는 이웃교회도 교회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자기 교회를 위한 교인의 삶을 벗어나 이웃교회를 보고 만나는 시도로 자기 교회에 갇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도전이 됐고, 전주 언덕, 원주 언덕의 설립을 돕고, 그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일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의 전신인 교회개혁 네트워크를 통해 목회자들의 연합을 넘어서 교인 간의 연합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언덕교회는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구조를 무너뜨린 좋은 예가 되었다. 목회자의 위치는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엡 1:22)이다. 그런데도 교회마다 머리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많아진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오죽하면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했을까!? 누가 추대하기보다 스스로 높아진 목회자의 위치를 성도중에 한 명으로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인총회는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매년 계획을 공유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시 논의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사역 담당자를 통해 실제 사역을 구현함으로써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 없이도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강단을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인과 공유함으로 마이크 잡은 자가 권력을 쥔다는 속설을 무너뜨렸다. 목회 전문가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교인)이 설교라는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균형을 갖게 된다. 특히 설교 이후 질문하는 시간은 공동체 해석의 토대를 마련했고, 일방적으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만들었기에 외형이 아닌 내실을 기할 수 있

었다.

목회자의 갑질도 문제이지만, 교인(장로)의 갑질도 문제이다. 교회에선 어떤 갑질도 없어야 한다. 언덕교회는 모든 교인이 교회를 운영(성도 중심의 민주적 운영)에 참여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 목회자가 교인(성도)의 일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가 교인의 일원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시도가 없었기에 그것을 개발하는 것 역시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목회자 자신의 꿈을 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교회는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함께한 교인 모두의 꿈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이해는 교회의 민주적 운영에 큰 힘이 된다. 민주적이란 다양한 의견안에 내가 있고, 내 의견이 동의받지 못할 때도 교회가 결정한 의견에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목회자는 자신의 의견이 있지만, 교회의 민주적 결정에 순종해야 하고, 설령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언덕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 사역자 중심의 선교활동을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 좋은 예가 되었다. 2003-4년도 평강의 집, 2004년 섭리의 집, 2005년부터 나사로의 집, 2008년부터 마포 재가 노인복지회, 2011년부터 용산 쪽방촌, 2017년부터 용산 드림시티 노숙인센터 사회봉사 활동, 2020년부터 부천 실로암교회 돕기 등을 해왔다. 언덕교회의 지속적인 선교활동은 목회자, 교회 직원이 아닌 교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선교로 교회의 몸인 교인이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이다. 특히 요즘 유행어처럼 쓰이는 '선교적 교회'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언덕교회가 태동할 당시 한국교회에 소수이지만,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2000년 뉴스앤조이, 2001년 진주 주님의 교회, 2002년 부천 예인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 2004년 바른교회아카데미, 기독청년아카데미, 2005년 청어람, 2008년 일산 너머서 교회 등이다. 이들은 언덕교회의 고민을 함께했거나, 고민의 결과로 시작되었고, 인적 물적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2000년대 초 태동한 교회개혁 운동을 함께 한 이들이다. 언덕교회는 때로는 군수기지로 군수품을 전달함으로, 때로는 동료교회를 격려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일로, 다른 때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방식으로 수고했다.

그동안 말로 하는 개혁은 많았다. 책 몇 권 읽고 이상적인 제도를 가르치는 경

우도 있었다. 그러나 개혁을 직접, 교회에 적용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또 언덕교회가 없었어도 다른 교회, 또는 단체나 개인이 역할을 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덕교회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덕교회가 나만 오르는 언덕, 내 추억 속에만 등장하는 언덕이 되지 않고 교회로 인해 상처 입은 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려고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되어진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습관적으로 말한다. 언덕교회는 그 습관적인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그러기에 언덕교회를 시작하고,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이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언덕교회가 있어서 교회개혁 진영 형성이 가능했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3. 분열

언덕교회의 분열은 언덕교회는 물론 교회개혁 진영에 매우 아쉬운 일이다. 민주적 운영과 대안교회로 방송을 통해 알려진 언덕교회에 '교회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몰려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현실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가나안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갑작스럽게 많아진 방문자는 어느 교회나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언덕교회의 가치와 사역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고 오는 것은 더 그렇다.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감당할만한 조직, 체계(교육)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언덕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또 일반적으로 위기가 분열로 가는 이유는 평상시 관계 또는 진영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미 갈라진 진영이 교회 내부에 있고, 이들은 이런저런 문제에서 시각 차이를 드러냈고 그로 인해 불편해졌다면 더 그렇다. 좋은 의도로 한 일임에도 진영에 따라 달리 보는 일이 흔하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누적되면 깊어진 골이 되고 결국 계기가 될만한 사건(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이 도화선이 되어 폭발한다.

언덕교회 분열이 한창 진행될 때, 제5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가 열렸다. 개회 설교를 맡은 진주 주님의 교회 백종국 장로는 언덕교회의 분열을 매우 안타까워했고, 다시 함께해야 함을 눈물로 호소했다. 저마다 교회로 인해 아픔을 가진 이들이 많았기에 복사골문화센터 대공연장은 침통함과 울음으로 가득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세미나에서 백종국 장로는 강의안에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기도문을 실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이 땅 위에서
복의 근원이고 싶다.

무엇보다 인애의 마음으로...

잔인과 냉혹이 기세를 떨치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여기에서 만큼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이 상식인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잘못을 교정하더라도
애처로운 마음을 먼저 품는
예수를 닮고 싶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상대가 어떠하든 나는 나의 도리를 다하는
인애의 마음을...

이미 주인에게 10억 원의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게 10원 빚진 자를
너털 웃음으로 보내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싶다.

아주 부족한 저 형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그나마도 선택되었음을 아는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한다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 싶다.

가장 효율적인 체제를 추구하지만
형제의 부족함을 안타까이 여겨

인내로 도울 줄 아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모두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분을 따르고 싶다.

정말, 간절히...

나는,
우리 교회는,
이 박복한 한국 땅에서
살아 숨쉬는 복의 근원이고 싶다.

언덕교회의 분열은 교회개혁 운동을 함께 하던 이들에게도 큰 아픔과 어려움이었다. 잘잘못을 가리기도 쉽지 않았고, 누군가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 형제교회들의 중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자는 원칙적인 중재일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었기에 골은 더 깊어졌다. 언덕교회는 분열에 대한 자체 판단을 내놓았다. 언덕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지만, 상대가 수용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화조차 불가능해졌고, 그렇게 덮어지는 아쉬움을 남겼다.

분열이 있은 지 두 해가 지난 후, 언덕교회 교우들이 새맘교회를 방문해 주일예배(2012.8.5.)를 함께 드렸다. 분열한 교회가 세월이 많이 흘러 서로의 흔적이 희미해졌을 때 방문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지만, 그렇게 빨리 찾아가 만났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다음 주에는 개혁교회 네트워크 연합 수련회(2012.8.11.-12)가 강화유스호스텔에서 열렸고, 두 교회가 함께 했다. 그리고 새맘교회 식구들이 언덕교회를 응답 방문을 했고, 2015년 11월 15일 건작연 강단교류로 박득훈 목사가 언덕교회 강단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현재 언덕교회는 분열을 경험한 이들이 교인의 약 20% 정도라고 한다. 80% 이상은 분열 이후에 등록한 교인들로 분열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잘 모르는 경

우가 많다. 분열 있은 지 13년이 되었기에 이제는 잊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는 아직도 상처임에 틀림없다.

4. 언덕의 현재

언덕교회의 자료(언덕교회 이야기 2023년)에 의하면 언덕 교인은 70여 명이다. 주일 예배 출석은 약 40여 명이고, 구역예배와 수요예배(줌)를 드리고 있다. 언덕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도행전 17장 베뢰아 사람들이 떠오른다. 너그럽고, 책임감이 강해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서로를 존중해 간섭하지 않고, 지적 욕구가 강해 보인다. 개역 한글 번역은 그들을 신사적이라고 표현했다.

언덕교회는 지역 교회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살기에 자주 모이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다. 자연스럽게 주일 중심의 교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약속한 시각에 적극 모이는 방법이 결코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느슨해지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또 교회로 유입되는 신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큰 위기이다. 그래서 현 언덕교회의 모임과 예배에 대한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권하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간을 더 확보해서 밀도 높은 예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법의 하나는 예배순서에 교제 시간을 넣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이 다른 교인과 밀도 있는 교제를 하도록 교회가 안내할 필요가 있다. 교인 간의 교제만은 교회의 의도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 새 가족이 등록하면 매주 한 명 또는 한 가정과 교제하도록 해, 짧은 시간 내에 교제권을 형성하도록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교회의 경우 몇 년 다녀야 형성되는 관계를 짧은 시간 내에 세우도록 안내해 새 가족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교인의 교제가 경조사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2000년 초반부터 한국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이런 현상은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덕도 자유롭지 못하다. 고령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이, 삼, 사십 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한 두 세대가 사라진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십 대가 없다는 것은 대학생과 군인, 대학원생, 사회 초년생이 없는 교회라는 말이고, 삼십

대와 사십 대가 없다는 말은 백세 시대에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가 사라진 것은 물론, 삼 사십 대의 자녀인 유치, 초등, 중고등 어린 세대가 사라졌다는 말이 된다. 이대로 있으면 별일이 없어도 인구감소로 인해 교회가 사라진다. 그러기에 대안 모색에 집중하며 더 과감한 시도와 세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앨런 크라이더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에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을 인내(patience), 아비투스(habitus), 교리교육(catechesis), 예배(worship) 그리고 발효(ferment)라고 말했다. 이 중에 아비투스는 '반사적인 신체 행위', '특정한 환경에서 훈련을 통해 습득된 제2의 습관'이다. 선생님은 어느 누가 봐도 선생님답고, 운전기사는 오랜 운전으로 운전기사답다는 말이다. 선생님과 운전사는 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지만, 각자의 고유한 아비투스(제2의 습관)를 갖게 된다. 신자는 그 누가 보아도 신자다운 아비투스를 삶과 말투에 드러낸다. 초기 교회는 성장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초기 교회는 성장했다. 그것도 꾸준히 고속 성장을 했다. 그 이유는 초기 교회가 가진 아비투스에 있다.

엘런 크라이더는 아비투스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두 모임을 비교한다. 하나는 콜레기아(collegia)이고 다른 하나는 에클레시아(ecclesia)이다. 먼저, 콜레기아는 동호회 또는 조합으로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의 친교 모임이고 남자들만 참여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직업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이후에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 노동자의 반년 치 연봉을 입회비로 냈고, 매달 회비를 내야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회비를 못 내면 회원자격은 박탈되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내다 버려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콜레기아 회원이면 장례를 치른 후 매장 해 주었다. 매장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조합정도는 되야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콜레기아에는 당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이들이 참여했고, 그 정도면 나름 잘산다는 자부심을 가질만 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콜레기아에 걸맞은 아비투스(제2의 습관)을 가게 된다.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이들이기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중산층 이상만 참여 할 수 있기에 확장성은 높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에클레시아는 직업과 무관하게 믿음으로 참여했고, 남녀는 물론 노

소, 인종의 차이도 없었다. 반드시 예비 신자로 1년 이상 교리와 신앙교육을 도제 방식으로 받았고,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면 안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했다. 사회적으로 유망하지만, 신앙에 위배 되기에 그동안 해오던 직업(군인, 연기자 등)을 버려야 했다. 또 다른 계급, 신분, 인종, 소유의 정도가 다른 이들과 형제·자매로 살아야 했다. 이 과정은 인내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충분히 자신의 제2의 습관으로 발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 부자, 귀족의 경우, 교리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고 믿었는데, 실제 고민은 자신과 다른 신분을 가진 이들과 형제·자매로 지내는 것이었다. 예비 신자가 1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신자의 아비투스에 동의하면 교회의 허락을 받아 세례를 통해 교인이 되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넘어서는 교제를 했다. 회비는 없었고, 자원하는 경우만 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지거나 병들면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돌봄을 했다. 신자가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해주었다. 신분과 상관없이 죽은 신자의 몸을 교회가 나서서 매장함으로 존엄성을 지켜주었다. 세상에서 신분과 돈으로 가능한 것이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가능했다.

313년(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의 자유를 인정받기까지 교회는 로마에서 해마다 40%의 성장을 했다. 로마 인구가 6천만 정도였는데, 그리스도인은 6백만 명이 넘었다. 인구의 10%까지 성장한 것은 성장만능주의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다운 아비투스를 형성한 결과이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웃과 적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며 살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신앙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불의한 자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이다.”(p.67)라고 앨런 크라이더는 말한다. 세상은 부자 되고, 출세하는 일에 감동하기보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와 싸우고, 이기는 신자,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사람답게 사는 신자, 홀로 우뚝 선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차별, 증오, 분열하지 않는 신자에 주목한다. 그 중심에 복음이 있고, 복음과 함께 가난한 이들의 형제·자매로 살았기에 세상은 교회를 달리 볼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 속에서 부흥했다.

언덕교회의 현재를 생각하며 초기 교회의 아비투스를 생각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언덕교회가 교회의 아비투스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실천을 모색해야 할 때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9년이 되었다. 또 작년 10월에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2010년 천안함,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1999년 시랜드 청소년 수련관 화재,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 등 대형참사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대형참사가 이렇게 많다면 소형 참사는 얼마나 많겠는가? 참사 희생자와 그의 가족이 살아가던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뒤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았다. 직접 참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참사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교회로부터 탈출을 결심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에 실망한 이들이 많았다.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라고 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라고 했다.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과 같다. 언덕교회는 초창기부터 거리와 광장에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이들과 함께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픔을 가진 자와 가까이하기 위해 노력해온 언덕교회답게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언덕교회가 걸어온 지난 20년의 길은 한국교회 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서 있다.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새로운 언덕, 언덕의 아비투스, 가난한 이들과 한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사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바란다.

지난 20년간 수고하신 언덕의 교인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잘하셨고, 고맙습니다."

<논찬 : 언덕교회 이은이 권사>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병들어가는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깨어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는 교회의 본이 되고자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더 모범적이고 개혁적인 교회를 꿈꾸어 오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내부 문제로 커다란 몸살을 앓다가 독립해서 교회를 만드는 최근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교회 민주화의 모범이 되고 한국교회 개혁의 군수기지 역할을 하고자 세워졌습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대안이 아닌 보편적 모델 교회가 되고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노력을 하고자 세워졌습니다.

언덕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드려 규약과 창립선언문을 만들고, 언덕정신을 세워가며 지켜내려 애쓴 창립 멤버들과 기꺼이 그 일에 함께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뜻을 같이하고 열심히 언덕을 섬기고 사랑했지만, 사정상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교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덕의 초창기 시대를 돌아보면 성도 사이에는 화합, 배려, 서로를 돌아보고 보살핌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구역 모임을 드린다고 하여도 다른 구역 식구들도 동참하여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었던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운동도 같이하고, 여행도 같이하면서 행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너와 나의 구별 없이 삶의 시간을 공유하며 귀한 지체가 되어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언덕은 질서가 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사제적 권위주의가 없는 평신도와 협력하였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려 애쓴 모범적인 교회임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매스컴을 타면서 교인들이 몰려오고 오래지 않아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는 분립에 관한 규약을 만들고, 지켜내려고 애썼지만 몰려온 새로운 교인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내며 혼란을 겪게 되었고, 목회자와 교인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었던 건강한 분립은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일이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언덕은 분열의 아픔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써 노력해왔습니다. 언덕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하는 새가족은 늘 창립 멤버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으로 언덕 정신을 함께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기르신 언덕을 조금 느리고 미약하지만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애쓰는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남겠습니다.

20년을 지내온 언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언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정겹게 오를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 슬픔과 걱정이 약속과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이 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쉬고 지칠 때, 언제라도 돌아갈 때 위로와 희망으로 그 자리에 반갑게 맞아주는 따뜻한 언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논찬 : 언덕교회 오세백 집사>

2024년 6월 24일은 한국 개신교가 선교를 시작한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근대화, 독립운동에 불씨가 되었으며, 민주화 운동 및 교육·의료·사회사업에 노력하면서 한국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도 기여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적팽창과 성공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순수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개혁 운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언덕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언덕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걱정,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성규 목사님의 언덕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발제문은 쇠퇴해가는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개혁의 선봉대인 언덕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언덕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출석하게 된 동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덕교회에 출석해야 겠다는 마음이 어는 정도 선 이후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렀습니다. 홈페이지의 교회 소개에 나와 있는 창립배경, 비전과 실천, 규약 및 재정 등을 둘러보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언덕교회에 출석하게 된 저로서는 발제문의 “언덕에 있어서”에서 말씀하신 언덕교회의 시작과 일곱가지의 설립 배경에 명시되어있는 기조를 지금도 묵묵하게 충실히 지켜내고 있는 언덕교회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출석한 지 거즘 일년이 다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취지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합니다.

언덕의 “분열”에 대하여는 약간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나오기 시작할 즈음에 언덕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에게 교회의 역사를 물어보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새맘교회의 이수연 목사님께서 언덕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워 온 네 사람에 관련된 설교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모임이나 단체가 분열되고 나서는 안 좋은 관계로 많이들 지내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그 안좋음을 극복하고 교류를 이어감이 바로 언덕의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언덕의 “현재”에 대하여는 언덕 교우들도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안해 주신 교인들간의 교제를 좀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배 전에 실시하는 언덕쉼터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언덕청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그 시행에 있어서 민주적 제도, 평신도의 주체적 역할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말씀해주신 낮은 자,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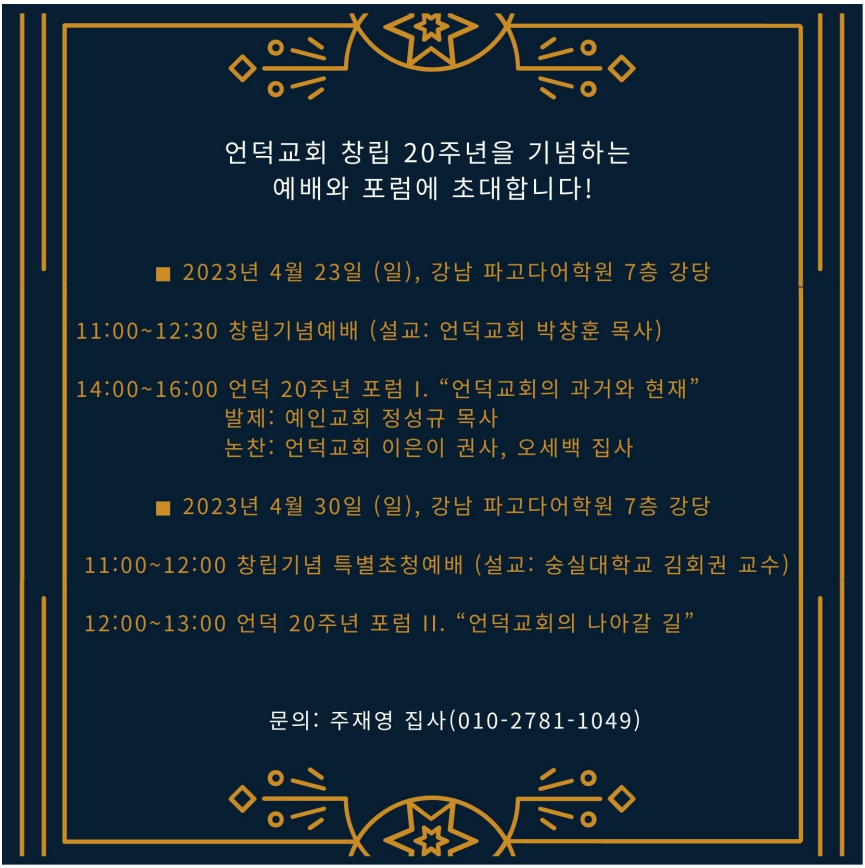
현재 저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서울역 드림시티 노숙인센터 사회봉사 활동, 난민 후원 등을 지속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된 자들을 위한 교회를 향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하여는 언덕교우들간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그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꿋꿋이 그 길을 걸어온 언덕교회에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도 잘하고 감사한 교회를 만들 것을 다짐해봅니다.

※ 초청장



■ 언덕교회가 함께 하는 곳

▌건강한작은교회연합 (http://cafe.daum.net/reformingchurch)

건강한작은교회연합(前 개혁교회네트워크, 이하 '건작연')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2005년 10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건작연은 설립 이후 회원교회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고,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며, 건강한 작은 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 회원교회: 너머서교회(경기 파주), 새맘교회(서울 강서구), 예인교회(경기 부천), 언덕교회(서울 서초구/박창훈, 김태완)
➢ 회원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종운, 박인성, 윤경아)
➢ 5대 핵심가치
• 하나, 건강한 교회: 민주적 교회 운영과 재정의 투명과 공개
» 이는 모든 직분의 평등성을 존중하고 복음적 분업을 이루겠다는 가치입니다.
• 둘, 작은 교회: 작고 낮아짐을 지향하는 교회를 유지
» 이는 의미적, 숫자적으로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겠다는 가치입니다.
• 셋, 분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 이는 교회의 과도한 성장과 크기를 반대하며, 일정 수의 교인들이 모였을 때 분립,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지향하겠다는 가치입니다.
• 넷, 교회연합을 우선하는 교회: 개교회주의를 배격하며, 작고 건강한 교회들의 연합 추구
» 이는 건작연이 특정 신학이나 관계, 방법론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합의된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 다섯,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을 실현, 평화, 통일, 정의, 환경 등 시대적, 사회적 역할을 다함
» 이는 신자는 일상의 제자도를 실천하고, 교회는 지역과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가치입니다.
➢ 실천방향 10가지
①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난 일상의 제자도 실천: 성숙한 신자,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로 모였을 때 뿐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의 일상

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② 일반성도 신학의 실천과 자립 신앙의 배양: 목사에 의해 규정되고 가르쳐지는 신학이 아니라 일반성도 스스로 해석하고 실천하며 책임지는 신학과 신앙을 배양한다.

③ 정관/규약을 통한 민주적 운영을 시행: 교회는 특정인이나 모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의하고 제정한 정관/규약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④ 모든 직분의 임기제와 재신임제 시행: 모든 직분자는 임기를 두고 재신임을 통해 연임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모든 직분은 봉사이기 때문이다. 봉사자는 신의/성실로 해야 하며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가 누구나 은사에 따라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교회 재정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교회 재정은 수입, 지출, 운영에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⑥ 300명 이내의 제한 성장과 분립/분가 지향: 청장년 300명 이내에서 회원교회들은 숫적 성장의 최대치를 자유롭게 정하고 미리 준비해 분립/분가한다.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건강한 작은교회를 유지한다.

⑦ 개교회주의 타파와 가치 중심의 연합 지향: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를 타파하고 개교회를 존중하면서 가치 중심으로 연합해 우주적 교회 일원으로서의 공교회성을 이룬다.

⑧ 교회개혁 운동에 동참, 지원, 협력: 신자와 교회적으로 또 건작연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수고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관련 활동에 동참하며 협력한다.

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적 나눔과 교회적 책임 수행: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신자는 개인적 나눔을 실천하고 교회는 지역적 책임을 다해간다.

⑩ 평화, 통일, 정의, 환경 등 시대적, 사회적 책임 수행: 신자는 개인 삶의 현장과 이를 넘어 국가/사회적으로, 교회는 지역과 이를 넘어 국가/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교회개혁실천연대 (http://www.protest2002.org)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는 한국교회의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

망을 갖고 2002년 11월 24일 희망의 작은 닻을 올렸습니다. 개혁연대는 한국 교회의 개혁과 이를 통한 사회 개혁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개혁연대는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일과 교회가 민주적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 문제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과 몰상식한 한국 사회 문제에 정직한 입장의 표명과 항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

<뉴스앤조이>는 목회자 세습과 거대 권력화, 불투명한 재정 운용, 물량주의, 이단 사이비 폐해 등을 심층적으로 고발해 왔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한국교회 개혁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창간 당시부터 한국 기독교의 주요 이슈와 현황을 교회 바깥으로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뉴스앤조이>는 △교회 개혁 △사회 변혁 △통일 한국을 목표로 강력한 언론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http://www.nhcc.or.kr/statement)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추구하는 하나님나라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은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터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님 오실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외침입니다. 그냥 교회개혁의 외침이나 갱신이 아닌 재구성이라는 단어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서한국 (http://biblekorea.org)

복음으로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고, 사회적 사명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발굴, 동원, 훈련, 지원, 파송하는 하나님나라 운동이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성경에 입각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다. ○ 전도와 양육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운동으로, 직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감당한다. ○ 일차적으로 청년대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시작하며, 청소년과 직장인들까지 그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

다. ○ 각종 포럼과 세미나 그리고 영역별 그룹 모임 등을 통해 성경에 입각한 이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고 구체화해 간다.

▌빅 퍼즐 문화연구소 (http://bigpuzzle.co.kr)

창의적이고 신선한 기독교 문화감각과 성숙한 문화의식을 배우고 소통하며 이 시대의 창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자 설립된 비영리 공동체입니다.
"빅퍼즐"이란 명칭은 다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한 조각의 퍼즐은 형태도 없고 별다른 가치를 지니기 어렵지만, 각 퍼즐들이 점점 채워지고 연합한다면, 분명 크고 분명한 실체를 서서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조금씩 스스로를 성숙시켜 가며, 자신의 비전의 퍼즐을 맞추어가는 실험장이 되고자 합니다.
한편, 영어로 Puzzle은 "의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의 영적 순례는 해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지요. 수많은 삶과 신앙의 퍼즐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가는(만들어가는) 여정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퍼즐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재미는 완성된 그림보 다도 그 퍼즐을 맞추어가는 과정이겠지요.
우리는 이런 소박한 발걸음을 통해 시대적 소을 따를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한 퍼즐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빅퍼즐의 꿈을 나누기 원합니다.

▌드림씨티교회 (https://cafe.naver.com/thedreamcity)

드림씨티교회는 노숙인을 위한 시설 드림씨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씨티는서울역 지하철 13번 출구 앞의 건물(용산구 동자동 43-60)을 임대 계약하여 2011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드림씨티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노숙인들이 서로 품고 용납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만들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에 복귀하게 된 노숙자들에는 특별히 하우징프로그램(숙소제공프로그램)과 함께 매칭펀드를 통한 자립지원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 규약

<언덕교회규약>

2003.04.27 제정
2003.12.28 1차 개정 (규약체계정비, 규약과 시행규칙 통합)
2005.01.09 2차 개정
2006.12.24 3차 개정
2007.11.12 4차 개정
2008.11.09 5차 개정
2009.11.29 6차 개정
2010.11.14 7차 개정
2012.11.11 8차 개정
2019.01.13. 9차 개정

전문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며 따라서 교회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사제적 권위주의, 개교회적 패권주의, 차별주의, 기복신앙, 낭비와 사치, 외형성장주의 등 각종 질병에 절어 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으로 사회를 선도하던 빛나는 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방관할 수는 없으며 분연한 의지로 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만 한다. 불행히도 교회개혁의 필요에 대한 높은 요구와는 달리 그 실천은 미약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가 중병상태에 빠져있다는 진단을 전제로 할 때, 지금은 교회문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교회개혁을 위한 실천을 필요로 하는 때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창립된 언덕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일하는 모범교회가 되고자 한다. 우리만 그리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 배격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심은 건강한 목회자의 말씀 사역과 각성한 평신도의 헌신의 적절한 균형과 동역 위에서만 목회자의 불필요한 교회지배가 제어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소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키우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키우시는 것이라는 고백 위에서 다만 종으로서 이 일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이 일을 홀로 추진하기보다는 같은 인식과 의지를 갖는 교회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교리나 신학사조의 세밀한 일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복음주의 신앙고백의 기조 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창조, 계시, 구속, 심판,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주관하며 성취하신다.

둘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셨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며 그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우주만물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다섯째, 성령은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닮아가게 하며 세상에서 권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여섯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과 삶을 지도하

는 최고의 권위이다. 일곱째,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언덕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의 예배장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6~6 (파고다어학원 내) 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본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교회는 다음 4가지 비전을 설정한다.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제4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실천한다.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다.
4.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한다.
5. 교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6. 관리 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7.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8.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한다.
9. 개 교회 주의를 배제하고 한국교회 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10. 민주적인 교회 규약을 보전하고 실천한다.

제2장 교회정치

제5조(신앙원리) 본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앙과 진리에 대한 최종적 근거로 믿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제7조(복음적 분업)

1.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이며, 개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준수한다.
2.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예배

제8조(예배)

1. 예배의 집례에 있어 평신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 다른 교회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를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흩어지는 예배는 다섯 번째 주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설교)

1. 설교 행위는 평신도에게 개방되며, 교회는 평신도의 설교 기회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섯 번째 주일의 설교는 평신도가 담당한다.
3.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행위로서, 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교호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교 후 적절한 시간에 설교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인과 직원

제10조(교인의 자격)

1.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등록요건으로 기초 신앙교육(2주), 교회규약 및 운영체계(2주)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1조(교인의 책임)

1.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2. 모든 교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회의 창립이념,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창립주일 즈음에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제13조(직원의 종류) 본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및 기타 교회가 정하는 직원을 둔다.

제14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교육·심방·성례집전·대외활동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단, 대외활동의 범위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평등한 목회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사의 시무에 대하여 임기제를 적용하며, 임기종료 연도 말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5.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1년마다 시무 기간에 대하여 1개월의 안식 월을 부여한다. 단, 안식월의 기간 및 조건은 목사와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6. 전임목사의 초빙.
   1)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목사초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목사초빙 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초빙 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임기를 포함하여 처우, 자격의 유지 등 초빙조건은 초청 시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7. 전임목사의 사면 : 전임목사는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경우, 연령이 만 65세가 된 경우, 초청 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5년마다 교인총회에서 시행하는 재신임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8. 비전임목사의 초빙 및 사면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단, 공동목회자는 원칙적으로 전임목사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장로)

1. 장로는 목회협의,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으로서, 집사 시무경력 5년 이상이며 운영위원 2년 이상 시무한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집사 시무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장로의 기본 정원은 2인으로 하되, 재적교인 25인당 1인씩 추가할 수 있고,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이후 은퇴장로라 칭한다.
4. 만 70세 이상, 본 교회 집사 시무 경력 2년 이상의 교인은 명예장로라 칭한다.
5. 장로는 5년 시무 후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으면 1년의 안식년을 갖는다. 장로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안식년을 교대로 갖게 할 수 있다. 장로는 안식년 중에도 본 교회에 출석하여 본 규약 제10조, 11조,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인으로서의 의

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장로 호선 시 재적교인 수 25명당 장로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7.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에 출석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으며, 연임을 위한 투표 시에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16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봉사 및 구제에 종사한다.
2. 권사는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교인으로서 장로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 및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의 여자교인으로서 집사 시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집사 시무 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 경력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권사의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4. 재신임에 대한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타 교회에서 취득한 권사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입교한 년도의 인사총회 개최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 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 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만 70세 이상, 본 교회 집사 시무 경력 2년 이상의 교인은 명예권사라 칭한다.

제17조(집사)

1. 집사는 교회운영과 섬김과 구제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만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의 임기는 5년에 정년은 만 65세이다.
4. 재신임에 대한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서리집사와 안수집사의 구분은 두지 않는다.
6.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 직은 본 규약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입교한 연도의 인사총회 개최 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장로, 집사, 권사의 임면 절차)

1. 선출 :
   1) 총무부는 장로, 권사, 또는 집사 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 명단을 확정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에 대하여는 장로직과 권사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사전에 물어 명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인총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선출된 자가 직위 취임 거부 의향서를 운영위원장)에 제출할 경우 해당 직위 선출은 무효로 한다.
2. 사면 : 장로, 권사, 집사는 65세가 되었거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권징의 대상이 되어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한다. 단, 해직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선출 시와 같다.

제19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교역자회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초빙한다.

제20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되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용하며 운영위원장에 소속한다.

제5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21조(교인총회)

1. 기능 :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장로, 권사 또는 운영위원 시무경력 3년 이상인 집사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총회 의장 선출
   2) 교인총회 서기 선출
   3) 교회 임직원 임면
   4) 예산과 결산 처리

5) 재산의 취득과 처분
6) 감사의 보고 청취 및 승인
7) 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8) 교인의 권징
9) 광대회의체의 가입 및 탈퇴
10) 타 교인총회가 정하는 안건

2. 구성 :
1)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 교인 중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2) 교인총회 의장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및 회기 :
1)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2)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연 2회 시행한다. 인사총회는 1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 교회 임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사무총회는 익년 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 예 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다룬다. 단, 필요시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임시회는 교인총회의장 또는 세례교인 10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회)

1. 직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부장을 선출하고, 필요에 따라 구역장을 선출할 수 있다. 직원회는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직원회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직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직원회 회장은 교인총회 의장이, 직원회 서기는 교인총회 서기가 각각 겸임한다.
3. 정기직원회는 분기별고 연 4회(1월, 4월, 7월, 11월) 개최한다.
4. 직원이 아닌 등록 교우도 직원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집행기관

제23조(운영위원회)

1. 기능 :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장 선출
   2)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3) 규약과 규칙 개정안 심의
   4) 예결산 심의
   5) 교회 운영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6) 광대회의체와 관련된 업무
   7)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2. 구성 :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권사회 대표, 각 부서의 부장, 구역장 대표, 여성회장 및 청년회장으로 구성한다.
   1) 교역자회 대표는 교역자회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목사로 하되, 목사가 1인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목사가 아닌 교역자를 교역자회 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장로회 대표는 장로회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장로회장이 아닌 장로회 대표는 장로 중에서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3) 청년회가 복수일 경우 최하연령층으로 구성된 청년회의 회장이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인 청년회장은 소속회의 의결로 다른 청년회의 회장 또는 소속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직을 대신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인 여성회장은 소속회의 의결로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직을 대신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구역장 대표는 1인으로 하며 구역장들이 정한다.
   5) 운영위원회 서기는 총무부장이 겸임한다.
3. 운영위원장 :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 후보는 시무장로 중 2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시무한 경력이 있거나, 집사나 권사 중 5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시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부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해당 부장직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5)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4. 소집 및 회기 :
1)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비공개결의가 없는 한 공개된다. 비공개결의는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4조(부서)

1. 본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성례, 주보, 예배안내, 찬양, 위임자 초빙 등
2) 선교부 : 국내외 선교, 언덕이야기 발행, 사이버선교 및 홍보업무, 미 자립교회 지원 등
3) 복지부 :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구제, 사회봉사, 장학사업 등
4) 교육부 : 교회학교, 새가족 및 기초신앙 교육에 대한 업무
5) 재정부 : 헌금 계수, 재정 수입 및 지출 확인, 재정 관리 등 재정에 대한 업무
6) 봉사부 : 봉사에 관한 업무(중식 및 접대 등)
7) 총무부 : 기록유지, 비품, 시설관리, 홈피, 업무조정, 미디어팀, 기타업무
8) 친교부 : 교인의 친교, 심방, 야외예배, 수련회, 체육대회, 친목활동, 교회안내, 환영행사, 교우소개, 새 가족 관리 등
9) 기획부 : 교회발전기획, 교회운영평가, 교회개혁운동, 기독시민운동, 대외협력 업무, 특별활동 등.
2.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위 제1항의 부서 중 1개 이상의 부서에 소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3. 각 부서에는 부장을 둔다.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장 외에 부장이 지명하는 차장, 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4.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의 통상적 업무는 부서의 자율로 시행한다.
 2) 부서와 운영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3)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 기간을 두어야 한다.
5. 각 부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1.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의 통상적 업무는 부서의 자율로 시행한다.
 2) 부서와 운영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간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3)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각 부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3. 교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부장)

1. 부장은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직원회에서 선출하되 집사, 권사, 장로 중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 만료로 인한 선출 시에는 익년도 집사 후보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사에 선출되지 못하면 동 부장 선출은 자동 무효가 된다. 부장의 정수만큼 연기 명 투표로 일괄 선출할 수 있으며, 부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의 수가 부장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의 수가 부장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한 수만큼의 부장을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일괄 선출된 부장의 관할부서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2회까지(총 3년간)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의 경우, 동일 부서에 대한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단, 임기의 연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4. 부장은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해당 부장의 동의로 직위를 교환할 수 있다.
5. 선출된 부장이 운영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한 경우 또는 궐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부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6. 위 제4항의 부장직의 교환과 제5항의 부장의 새로운 선출은 직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기타 기관) 교회는 교인총회의 의결로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자치기관

제28조(종류) 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구역회 등의 직능 자치기관과 전도회, 여성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성별, 연령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1. 교역자회:
   1)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2) 교역자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교역자회에서 정한다.
2. 장로회 :
   1) 장로들로 구성되며, 목회협력과 목회협의, 교인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2) 장로회장은 장로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3. 권사회 :
   1) 권사들로 구성되며, 권덕, 심방 등을 도우며 봉사에 협력한다.
   2) 권사회장은 권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

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4. 집사회 :
   1) 집사들로 구성한다.
   2) 집사회장은 집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5. 구역회 :
   1) 교회가 정한 구역 내의 교인으로 구성한다.
   2) 구역장은 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수에 미달할 경우 재 추천한다. 보궐 시에도 동일하다.
   3) 구역회는 성경공부와 교제를 균형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전도회 :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여성회 : 여성들로 구성되며,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8. 청년회 :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으로 구성한다.
9. 학생회 :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장의 지도를 받는다.
10. 기타 신앙증진, 교우 간 교제, 사회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자발적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감사 및 평가

제29조(회계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되, 운영위원이 아닌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1년이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교인총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운영평가)

1. 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에는 목회 평가운영위원회 및 부서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회 운영 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운영 평가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제9장 회의 및 투표

제31조(회의 성립)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교인총회와 직원회는 참석 인원과 무관하게 회의가 성립된다.

제32조(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33조(회기의 조정)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각종 회의의 정기 개최일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직원회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개최한다.

제34조(투표방식)
1. 각종 직임자의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각종 직임자의 선출시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자를 기입한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3. 각종 직임의 투표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및 의견표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복수의 직임을 선출하는 투표에서는 선출 정수만큼 표시하는 연기 명 투표로 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35조(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한 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시설 및 비품 관리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교사업 2분의 1, 사회복지사업 2분의 1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단, 선교사업, 사회복지사업의 합계액이 경상예산 총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결산 후 잉여재원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3. 결산은 내부감사와 더불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목사의 보수는 중산층 수준의 후생수준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지 않도록 책정한다. 전임목사의 직분 간 계급적 차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상황, 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평한 기준을 적용한다.
6. 발전기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사용용도는 제49조에 제시된 발전과제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발전과제 이외의 용도에 대한 지출을 위하여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37조(예 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인위적 수입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지출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8조(헌금관리)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재정부장이 지명하는 재정부원 1인만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39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부장이 집행하되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 미만의 예산 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전임직원의 보수)

1. 전임 직원이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을 말한다.
2.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초청 계약 시 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정해진 보수 외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으로 제한한다.
4.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전임교역자에게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속연수의 산정에 있어 최초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재직 기간은 1년으로 산정하며, 6월 미만의 재직 기간은 0.5년으로 산정한다. 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42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

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합산 금액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언덕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교인총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제43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 관리)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계좌와 이 계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3. 이미 입금된 헌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제11장 권징

제45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46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의 대표는 그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 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목사 및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47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12장 발전과제

제48조(발전과제의 수립) 기획운동부는 선교 및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49조(발전과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한다.

1. 교육사업 : 사회정의 실천을 위하여 유망한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지도층에 투입하는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2.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 : 한국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초청하여 훈련시킨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등 대외 훈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3. 빈곤층 지원 : 빈곤층을 위한 생활의료주거 및 급식 시설의 지원을 추진한다.
4. 투명한 성금 지원체계 구축 : 교회가 빈곤층 지원 성금을 중개하는 체제를 갖춘다. 성금의 중개 비용은 전액 교회가 부담하여 성금의 전액이 손실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제50조(교회의 분립) 교회는 최근 6개월간 평균 출석교인 수가 2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의 후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분립을 추진하되, 그 절차와 방식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장 부칙

제1조 (개정) 본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개정시안을 최소 2주 이상 게시판에 공지한

후 여론을 수렴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을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하고,
교인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규칙) 본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본 규약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임기의 산정) 모든 임기의 기산일은 1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는 인사총회의 개최일로 한다. 단, 기산일과 실제 임직을 받은 날과의 차이는 부가적으로 부여된 임기로 간주하며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시행규칙)

1. 직분 임기 중 사임한 경우, 임기 완료 시점까지 해당 직분에 대한 피선거권은 자동 상실된다.
2. 장로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경우, 장로 직을 제외한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정년 은퇴와 개인사정으로 은퇴한 경우, 자치회를 포함하여 선거권만 유지된다.

<언덕교회분립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칙은 언덕교회 분립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언덕교회 규약 제50조에 규정한 교회분립이 언덕교회 규약과 창립선언문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분립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용어)
1. 기존의 언덕교회(잔류)를 제1언덕이라 칭하고, 창립하는 교회를 제2언덕이라 칭한다(분립이 완료된 후 실제 이름은 다를 수 있다).
2. 기존의 언덕교회와 분립되는 언덕교회를 총괄하여 언덕교회공동체라 칭하고, 언덕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개별교회는 지교회라 칭한다.

▣ 제2장 분류 방법

제4조(분립기준)
1. 원칙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교회 관할구역으로 한다.
2. 분립시 가능한 한 신도의 수를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한다. 특히 장로, 권사, 집사의 수에 있어서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3. 교회가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도들의 개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단, 분립에 따른 과도한 불균형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조정기구((가칭)분립위원회)를 두어 조정에 나설 수 있다.
4. 언덕교회 지교회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교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언덕교회 규약 제50조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5조(장소) 새로 분립되는 교회의 위치는 지역, 교통 및 교인의 분포를 고려하여 정하되, 기존 교회의 위치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한다.

제6조(담당목사)
1. 분립시 기존 언덕교회에 시무하는 공동목회자가 각각 한 교회씩 담당한다.

공동목회자가 2인 이상이거나, 분립교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임, 비전임을 막론하고 각 교회는 담당목사를 지정하되, 월 2회씩 강단교류를 해야 한다. 분립교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강단교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모든 언덕교회가 균등하게 강단교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언덕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각 교회에 담당목사를 두되, 강단교류를 통하여 공동목회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3. 각 지교회는 목회자를 복수로 둘 수 있다. 단, 전임목사의 초빙은 강단교류를 시행하는 모든 지교회의 합의로 한다.

▣ 제3장 재산 및 비품

제7조(재산)

1. 분립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본자산은 모두 기존 언덕교회에 귀속한다. 기존 언덕교회는 귀속 자산 중 일부를 분립되는 교회에 증여할 수 있다.
2. 분립 시 새로 분립되는 교회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위하여 분립 시점의 특별 적립기금 중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창립일로부터 3년 간 또는 3개월 평균 출석교우 70인에 이르기까지, 언덕교회공동체의 지 교회는 매월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분립된 교회를 지원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4. 홈페이지의 관할권은 기존 언덕교회가 갖는다. 분립된 교회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소유하되 기존의 언덕교회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세부규정)

1. 특별적립기금은 분립 시 각 지교회에 소속되는 교인수에 비례하여 귀속시킨다. 단, 개혁교회네트워크(건강한작은교회연합) 회원교회의 교인으로 충원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언덕교회가 분립하여 복수의 교회들로 언덕교회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는 분립시마다 모든 지교회가 협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분립시키고, 분립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기타 사항들을 공동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 한다.

제9조(문서)

1. 분립 시점의 모든 문서(등록 청원서 해당자 제외)는 기존 언덕교회에 관리와 소유권이 있으나, 분립에 필요한 일체의 문서는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식으로 신속히 제공하여 창립을 돕는다.
2. 교회학교도 4조2~4항에 준하여 적용하고, 문서 또한 9조1항을 적용한다.
3. 언덕교회 분립규칙에 따라 개척되어지는 교회의 교우들에게는 이전 교회 경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4장 교회 네트워크

제10조(교회 연합)

1. 제1언덕과 제2(이상)언덕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고백과 한 몸으로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주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교회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워 나아가는데 항상 뜻을 함께 한다.
2. 개혁교회네트워크(건강한작은교회연합)에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회원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제1, 제2(이상)언덕은 선교, 복지, 구제, 장학사업 등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일창구로 운영한다. 단, 언덕교회공동체 지교회 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운영이 불가할 경우, 합병하여 한 공동체로 통합할 수 있다.
4.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제3이상의 언덕교회공동체(개혁교회네트워크(건강한작은교회연합) 포함)가 공동 분립을 추진할 경우, 모든 회원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로서, 분립 준비와 창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각출하여 그 뜻을 도모한다. 단, 기금부담은 전년도 예산대비 균등 비율로 한다.
5. 분립되어 창립되는 제3이상의 언덕교회에 대한 제반사항은 언덕교회공동체 내 모든 지교회들이 합의하여 일괄 처리하고, 이를 위한 집행기구 역할은 공동운영위원회가 맡는다.
6. 언덕교회 규약과 규칙은 분립하는 모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기본규약으로 사용한다. 또한 규약 개정은 공동체 내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 그 초안을 기본 양식으로 지교회별 공청회를 통한 언덕교회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후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인총회 상정, 교인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7. 언덕교회공동체 지교회들 간의 통합 운영과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각 지교회의 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덕교회공동체 내

제반 사항 등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위임한다.

8. 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까지 가능하다. 각 교회 대표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장과 운영위원(대의원)의 임기제한은 각각 후임자의 임기 만료일이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반복 적용한다. 그리고 각 회원교회 운영위원수는 동수로 파송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는 60일 이내에 후임을 파송해야 한다.
9. 공동운영위원회가 언덕교회공동체 내 지교회들의 대외적 운영을 담당하는 하나의 교회로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수련회와 같은 연중행사는 상황에 따라 연합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선교와 복지)

1. 제2 이상의 분립되는 모든 교회는 회계연도 해당 계정과목의 60%를 의무적으로 갹출한 금액을 단일창구로 통합하여 선교, 복지, 구제 및 장학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40%는 지교회별 선교와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2.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 운영에 관한 일체의 의결 및 집행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즉시 각 지교회 인터넷게시판과 운영위원회에 구체적 자료를 명기하여 문서화된 형태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부칙

제1조(기타교회 네트워크 청원절차)

1. 건강한 교회가 언덕교회공동체에 가입을 청원할 경우,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언덕교회 공동운영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공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회는 인터넷 공시와 함께 각종 행사 참여와 언덕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행할 수는 있으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정회원 교회로 승격되어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언덕교회의 지교회로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제2조(권징)

1. 본 규약과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공동운영위의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언덕교회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바로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한 몸과 한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언덕교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회수된다. 이를 위한 의결권은 언덕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조(분립규칙 개정)

1. 본 규칙은 분립한 모든 지교회가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각각의 지교회 대표로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인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분립 시기 및 시점)

1. 언덕교회의 분립은 언덕교회 규약 제 49조에 의하여 실행한다.
2. 분립 시점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하고 교인총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또한 분립 일정은 회계연도의 차질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분립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다.
3. 회계연도의 규정은 언덕교회규약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공동)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집행한 사실을 명문화하여 반드시 각 교회 운영위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또한 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효력)

본 규칙은 교인총회에서 의결된 시점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언덕교회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

다음의 기사들은 언덕교회의 창립 취지에 주목한 언론매체들에서 언덕교회를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일부 기사 내용에 따라서는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우리 언덕교회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뉴스앤조이, 2003년 04월 28일>

삶이 힘들고 고달프신 분, '언덕'으로 오세요
언덕교회, 민주·개혁·개방적 교회 지향… 4월 27일 창립예배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 여기 '언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골고다' 언덕이고, 또 하나는 '고향의 언덕'이다.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현장을 뜻한다. 그곳은 슬픔과 걱정이 약속과 희망으로 바뀐 기적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 언덕을 바라보면 위로와 희망이 생긴다. 고향의 언덕은 일상의 삶에서 지쳐 쉬고 싶을 때 떠오르는 곳, 언제라도 돌아갈 때 항상 그 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다. 4월 27일 창립예배를 드린 언덕교회는 '언덕과 같은 교회'를 지향한다.

설교, 일반신도도 할 수 있다. 언덕교회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3층을 임대해 예배공간으로 쓰기로 했다. 창립예배에는 60명 정도가 모였다. 절반은 이날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고, 30명 정도가 창립멤버들이다. 이들은 각자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평소 좀 더 모범적이고 개혁적인 교회를 꿈꿔오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졌다. 교회 내부 문제로 커다란 몸살을 앓다가 독립해서 교회를 만드는 최근의 흐름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언덕교회는 강단을 개방해 목사 뿐 아니라 일반신도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배를 마친 후 그날 설교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설교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인 이승구 교수다.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깨어 건강

하게 일구어 나가는 교회의 본이 되고자 한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성경에 기초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한국교회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일하는 교회 등 네 가지 비전을 설정했다.

좋은 교회 위한 열 가지 실천지침

구체적인 실천지침도 마련됐다.

1.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오전예배에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아동설교를 먼저 들은 뒤 아이들은 따로 모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성인들을 위한 설교가 이어진다.
2.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안양에 있는 '평강의집'을 돕기로 했다. 이곳은 장애를 가진 노인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 이밖에 교회 인근에 외국인노동자들이나 빈민층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3.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흩어진 예배를 드린다. 일 년에 한 두 차례는 다른 교회를 출석함으로써 언덕교회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교회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직분에 임기제를 도입했다. 목사는 청빙할 때 시무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장로, 권사, 집사의 임기는 3년이다. 연임 여부는 교인총회에서 결정된다.
5. 교회 운영에 관한 결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6.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한다. 9개의 부서를 비롯해 직원회·자치회의·교육기관·구역회 등이 있고, 교역자회 대표·장로회 대표·여성회와 청년회장·각 부서장이 집행권을 가진 운영위원회가 있다.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교인총회다. 운영위원장이 교인총회의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7. 관리 지출을 최소화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8. 전용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시설과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재정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목회자 후생 수준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중산층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 수준에 맞춘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교회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1/3)·사회복지

(1/3)·발전기금(1/3) 용도로 지출한다. 발전기금도 자칫 돈이 축적될 때 생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회의 발전과제를 정하고 거기에만 쓰기로 했다.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 학생 지원, 목회자 재교육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9. 한국교회 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와 같은 단체의 운동에 참여하고 후원한다.

10. 민주적인 교회규약을 만들어 실천한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교인총회를 열고 앞에서 소개한 내용이 뼈대를 이루는 규약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이승구 목사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우시는 곳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마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맞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것을 드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하나는 "우리끼리 지내면서 '여기가 좋다' 하고 안주하고 만족하면 의미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교회의 의미를 자꾸 알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다.

예배가 끝나고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혁연대 집행위원 중 한 사람인 이승종 교수가 이 교회 창립멤버인 탓에, 개혁연대에서 함께 활동하는 신흥식 장로·고세훈 교수·이진오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YMCA 중앙연맹 김의욱 부장·YWCA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오경혜 관장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기독교 내 교회 안팎의 NGO 운동가들의 만남은 이 교회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암시한다.

점심식사를 한 뒤 첫 번째 교인총회를 열었다. 총회 때 논의할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공지한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다가 규약 중에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50세 이상 남녀 세례교인으로…' 하는 대목과 '권사는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여자 교인으로서 장로직을 선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는 조항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있나' 하는 한국교회 전통의 첨예한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여자도 일정한 자

격이 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장로 또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앤조이, 2003년 07월 02일 >

언덕교회 설립 3개월부터 외부 지원
선교·사회복지·기독시민운동 등 외부 지원 확대 계획

4월 27일 설립되어 2개월을 갓 넘긴 언덕교회가 외부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언덕교회 운영위원회는 6월 29일 회의에서 "교회의 창립 취지를 살려 7월부터 선교 및 사회복지 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회가 이번에 지원하는 곳은 사회복지사역을 하는 평강의 집·YWCA, 교회개혁운동을 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뉴스앤조이 등 네 곳. 그러나 재정적 여유가 생기는 대로 선교·사회복지·기독시민운동 등 외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언덕교회는 창립 때부터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지출을 최소화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리고 △관리비용의 최소화 : 가급적 무급제, 비전임제 △교회 운영은 자발적 헌금(주일헌금, 십일조의 형태)으로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 한다 △목회자의 후생수준은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중산층 수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 수준 정도에 맞춘다 △최소한의 교회 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관리, 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1/3), 사회복지(1/3), 발전기금(1/3) 용도로 지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3층을 임대해 예배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도 교회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에 재정을 쏟지 않기 위해서다.

언덕교회는 설립 후 2개월 동안은 30여 명 교인들간의 친교와 유대를 다지는데 애써왔다. 홈페이지(http://www.unduk.or.kr)를 개통하고, 매일 온라인 출석부에 한 마디씩 격려의 글을 남기면서 교제하는 것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6월 15일 주일에는 불광동에 있는 기독교수양관에서 야외예배를 드리면서 유대를 다졌다. 장소나 형식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은 이승종 장로가 설교했다. 언덕교회는 강단을 개방,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강단에 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일 오전예배는 일정하지만 오후 프로그램은 매주 다르다.

성경공부·평강의 집 봉사활동·각 위원회 회의·가정봉사 등을 돌아가면서 한다. 일년에 두 차례는 언덕교회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들을 방문해 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한 합일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교회 이름처럼, '언덕'과 같은 교회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7월 20일 주일예배 후에는 '언덕교회의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3. 10. 24>

25일 평신도 개혁모임 출범

평신도가 뭉쳐 교회 개혁에 적극 나선다. 그간 목사, 장로 등 교회 지도부에 종속적 위치였던 일반 신도가 네트워크를 구성, 교회 내 부정, 불법 행위를 견제할 태세다. 일례로 지도자의 전횡에 따른 잡음을 겪었던 시흥교회, 강남제일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등 30여 곳의 신도는 25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열리는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행사에서 연대 기구를 출범시킨다.

이날 행사에선 교회 모범 정관도 선포된다. 대부분의 교회가 정관(내규) 이 없고, 분규가 발생할 경우 목사, 장로를 우선 보호하는 교단 헌법에 의존하는 관행에 비쳐볼 때 향후 교회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백종국(경상대) 교수가 완성한 이 정관에는 목사, 장로의 재신임, 교회 재정 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행사를 기획한 뉴스앤조이의 김종희 대표는 "참여 의사를 밝혀오는 교회가 계속 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4.1.3>

평신도 중심의 교회 '무소유 신앙' 실천

구랍 31일 밤 11시 30분 서울 독산동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3층엔 30여명의 기독교 신자가 모였다. 2004년 새해를 맞아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렸다. 남들처럼 번듯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이다. 이름하여 언덕교회(www.unduk.or.kr). 일요일이나 이날처럼 특별한 날에는 20여평의 작은 공간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사용된다. 박득훈 목사의 설교가 시작됐다.

"지난해의 모든 것을 잊어버립시다. 자랑거리도, 업적도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이 힘을 쏟읍시다."

참석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두 시간여의 예배를 마친 그들은 떡을 함께 먹으며 신년 덕담을 나눴다. 한국 기독교의 개혁 운동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언덕교회는 지난해 4월 말 창립된 신생 교회다. 한국 기독교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작은 공동체를 형성했다. 목사, 장로 등의 일방적 목회를 지양하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민주적, 개방적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교수, 사업가, 언론인, 직장인, 의사 등 구성원도 다양하다.

김종희 집사는 "신자 대부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결집했다."고 말했다. 일부 성직자의 전횡, 투명하지 않은 재정, 지나친 죄의식 고취 등에 숨이 막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교회성장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기독교인 열 명 중 여덟 명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덕교회는 '소유하는 교회'를 거부한다. 그래서 예배용 공간을 임대해 쓰고 있다. 대신 이들은 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웃에 대한 봉사 등에 힘을 쏟는다. 교회 재정을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또 재정의 33%를 사회

복지에 쓰고 있다. 최근 교회 규약을 보강해 목사, 장로, 권사 등 모든 직분자의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았다. 재임하려면 교인 총회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박목사는 “평신도의 설교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한국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었다”며 “최고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목사가 갖는 표도 한 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언덕교회는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지난해 7월부터 매달 한차례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사는 안양 '평강의 집'을 찾고 있으며, 지난 성탄절 전야엔 동두촌 기지촌 여성을 돕는 ‘다비다의 집'을 방문했다. 앞으로 교회 인근의 독거노인 등 빈곤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배도 독특하다. 어른, 어린이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어른들은 어린이 설교를 함께 듣고, 나중에 어른 설교를 또 다시 듣는다. 그 사이 아이들 대상의 별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언덕교회는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혁 지향적 교회들이 만들었던 교회개혁연대를 주도하고 있다. 물신주의로 치닫는 사회, 극심한 피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종교, 이런 세태에서 그들의 작은 몸짓이 어떤 반향을 끌어낼지…. 박목사는 “바른 길은 언제나 좁고 힘들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다.”고 대답했다.

<뉴스앤조이, 2004. 6. 10>

평신도 설교로 더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들.
언덕, 새길, 강동, 향린교회… 철저한 준비·성숙한 의식이 기초

<뉴스앤조이>는 기존 교회의 설교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평신도가 설교하는 교회 다섯 곳을 취재했다. 평신도 설교를 시행한 기간, 교회 규모, 담임목회자 유무, 평신도 설교 횟수 등 교회마다 사정이 제각각이다. 이들 교회는 평신도의 설교를 목회자의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교인들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평신도 설교자를 선별하는 교회 공동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설교하는 평신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 밖에

서 염려하는 문제들은 기우일 뿐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편집자 주).

언덕교회(박득훈 목사) 규약에는 “설교행위는 평신도에게 개방되며, 교회는 평신도의 설교기회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언덕교회는 4번에 걸쳐 평신도 설교를 시행할 계획이며, 벌써 평신도들이 두 번 설교한 바 있다.

올해 3월 평신도로서는 첫 설교를 한 신현호 집사(예배부장)는 “3주 정도 준비해 설교했다”면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 설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설교할 기회를 좀 더 자주 얻는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담임 박득훈 목사도 “연말에는 내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제안할 작정이다”고 말할 만큼 평신도 설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평신도 설교를 살펴본 결과 상당히 정성껏 준비했고, 신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평신도들이 설교가로서의 은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평신도 설교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신도들이 설교를 준비하며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고뇌를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MBC 100분토론, 2008. 1. 31>

이런 교회라면 기꺼이 다니겠다 (기장회보 492호 인용)

지난 1월 31일 「MBC 100분토론」에서 목회자 세금문제와 관련한 찬반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MBC 100분토론」 자체를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회 바깥의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토론자 중 언덕교회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가 있었습니다. 「100분토론」이 끝난 후 언덕교회 홈페이지는 방문자들의 폭주로 인해 며칠 동안 서버가 다운되고 복구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이후 매주일 새 신자들이 30-40명씩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한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100분토론」 시청소감을 언덕교회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며 소수는

박득훈 목사의 발언내용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박득훈 목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타종교 혹은 무신론자와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글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본 교단에 속한 교회는 아니지만 「언덕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이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홈 페이지에 소개된 언덕교회의 '비전과 특징'부분을 소개하고 100분토론」이후 교회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교회소개 부분은 생략, 편집자)

"대대로 모태신앙이었고 가족에도 목사님이 있지만,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를 떠났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라 위로하고 살고 있었지요.
교회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점점 더 보기조차 괴로워지는 모습에 너무 슬펐습니다. 오늘 100분토론 보면서 박목사님 말씀 듣다가 울었습니다.....어떤 뜨거운 설교보다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한국교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 새벽에 지하철에서 노인분들이 교회약도가 적힌 휴지를 나눠주는 걸 볼 때마다...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목사님말씀을 듣고 제가 모든 교인들을 비판한 게 부끄럽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다 최근 몇 년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자체에 회의가 들어서 한 때는 예수님의 희생에 눈물을 흘린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였지만, 지금은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분토론」은 이런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대한 비판을 스스럼없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라면, 목사라면, 교인이라, 십일조라면, 헌금바구니라면 끔찍이 싫어하고 이를 갈았던 내가 언덕교회라면, 박목사님이라면, 언덕교회 성도라면, 언덕교회에 내는 헌금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다니요!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저는 박목사님에게 본 것 같았습니다. 진실 된 말 한 마디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구요. 박목사님 덕에 예수님이란

존재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요.”

“이전에는 그저 기독교가 나빠 보이고 신뢰가 안 갔는데 박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 원래의 모습이 진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도 입니다.”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언덕교회라면, 한번 저의 믿음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한국교회에 실망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박목사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시 제가 출석하여 예배드릴 교회가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2008. 2. 13>

종교인 소득세 당연. 종교법인화 필요
교회 자정해야 사회지탄 피할 수 있어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56) 공동대표가 2003년부터 담임목사직을 맡아 일하고 있는 서울 충정로 언덕교회에는 그 흔한 교회 안내 간판이나 표석이 없다. 그 교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건물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이다. 언덕교회는 교회 규약 4조를 통해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찾기가 쉽지 않은 언덕교회 교인은 100여 명이다.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옷깃이 헤어진 양복을 입고 있는 박 공동대표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반 사회의 언론과 시민운동을 통해 교회를 더 자주 부끄럽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득훈 목사는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런던신학교(London School of Theology)에서 신학사 학위, 더함대(University of

Durham)에서 기독교사회윤리 전공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귀국 후 성터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을 거쳐 지금은 교회개혁실천연대 및 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언덕교회 전임목사로 일하고 있다.

-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과세 타당성의 근거는.

▲ 현행법상 목회자는 면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해도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목회자는 이러한 특혜를 반납하고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다양한 이유가 있다.

종교개혁 이후 목회자 성도나 사회에서 섬기는 비목회자 성도나 모두 성직자인 셈이다. 비목회자 성도가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 같은 논리로 목회자 성도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톨릭 사제들이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고 자신들을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로 여긴다 해도 성직자 신분이 손상내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 세법에 근거한다면 목회자 역시 일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소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목회자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회자는 적극적인 소득세 납부를 통해 국가공동체 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데 앞장 서야 할 위치에 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의 적절한 견제와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세금은 공의로우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부에서 종교 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 종교법인화를 하면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고 교회 본연의 사명 완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종교 법인법이 잘못 제정되거나 국가운영이 독재화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생각할 때 기우라는 생각이 든다.

교회는 현재 종교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되면 19가지의 조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사학,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같은 성격의 비영리법인들이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규제을 받고 있는 반면에 유독 교회를 비롯한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만이 관련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적지 않은 교회들의 불투명하고 부패한 재정운영에 대한 교회 자체 내의 자정 능력이 상실돼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

을 의무화하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요청하는 재정 지출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정서에 반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 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사회 쟁점화 된다고 보나.

▲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재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부패와 대형 비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종교계로부터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상식 이하의 일들이 종교계에서 벌어질 때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쟁점화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하고 생각한다.

- 일부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받는 남다른 대우나 처우가 간혹 일반인에게 알려진다. 초대형교회를 개척했기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한가. 초대형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소유인가.

▲ 당연하지 않다. 이런 모습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성도들의 자발적 결정과 선택을 목사가 마지못해,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목사가 성도들에게 진정한 제자도 대신 소위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부가 자기 손에 쥐어진다고 해도 자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명을 완수해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복음적 혹은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금욕주의적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과 물질을 나누기 위함이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초대형교회 목사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 부자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럴 권리를 갖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지다 보면 성공한 목회자가 호화롭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표면적으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소유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목사가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교회의 소유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헌금이나 성도들의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호화로운 삶을 약속하거나 허용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다.

- 종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나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가장 근원적 치료는 중세의 종교개혁 때처럼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각종 부패와 비리에 대해 항의하고 교정을 촉구하는 현안대응 운동,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회정관 보급 운동, 교회개혁 일꾼 양성 운동, 왜곡된 신학 바로잡기 운동 등의 다양한 교회개혁 운동에 보다 많은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동참해야 한다. 부패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더 이상 교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그동안도 종종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일반 사회의 언론과 시민운동을 통해 교회를 더 자주 부끄럽게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도 더 이상 치료책이 없는 상황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다.